

# 2016학년도 제35회 국어교육과의 날

## ◆식순◆

사회 : 문체부장 12류성진

12:20 ~ 12:30 자리착석 및 국어교육과의 날 개회  
학과장 및 학회장 인사

12:30 ~ 13:50 UCC & 공모전 & 양케이트 (투표 동시 진행)

13:50 ~ 14:00 쉬는 시간

14:00 ~ 15:30 수업경연대회 및 교수님 강평

팀명 : 글바다 팀원: 14구지은, 14김보민, 14김연수, 14박나성, 14백자은

팀명 : 십구문반 팀원 : 14이우빈, 15김소연, 15조윤진, 15홍난금

팀명 : 훈민정음 팀원 : 12김도현 12박정하 12이상철 12정승현 12최석우

15:30 ~ 16:15 논문발표 및 교수님 강평

10대 청소년의 신조어 사용 실태와 신조어 교육방안 14구지은, 14박나성, 14백자은

16:15 ~ 17:15 졸업생 특강

17:15 ~ 17:30 쉬는 시간

17:30 ~ 18:10 1학년 연극 (견우와 직녀)

18:10 ~ 18:30 UCC & 공모전 & 시화전 시상  
수업경연대회 시상 및 폐회

\*휴식시간 및 각 일정별 시간은 유동적으로 변경

## ◎ 관련 첨가물 ◎

### ◆ 수업 경연 대회 : 발표 순서

1. 팀명 : 글바다 / 팀원 : 14구지은, 14김보민, 14김연수, 14박나성, 14백자은  
고등학교 2학년 사회의 거울, 문학 (1)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 02쪽
2. 팀명 : 십구문반 / 팀원 : 14이우빈, 15김소연, 15조윤진, 15홍난금  
중학교 2학년 삶과 문학 (2)가정 ..... 13쪽
3. 팀명 : 훈민정음 / 팀원 : 12김도현 12박정하 12이상철 12정승현 12최석우  
고등학교 2학년 고전문학의 아름다움 (2)최척전 ..... 20쪽

### ◆ 학생 논문 발표 : 14구지은, 14박나성, 14백자은

- 10대 청소년의 신조어 사용 실태와 신조어 교육방안 ..... 29쪽

☆ 1팀 : 글바다 팀원 : 14구지은, 14김보민, 14김연수, 14박나성, 14백자은

◆ 교수·학습 계획안

| 국어과 본시(1 / 3 차시) 수업안 |  |     |            |                |        |
|----------------------|--|-----|------------|----------------|--------|
| 단 원                  | 1. 사회의 거울, 문학/ 1. 사회를 보는 눈, 소통하는 우리<br>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조세희   |     |            |                |        |
| 실시대상                 | 고등학교 2학년   | 일 시 | 2016.10.07 | 장 소            | 사범대 강당 |
| 성취기준                 | - 토의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타인과 공유할 수 있다.<br>- 작품의 구조 분석을 통해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다.<br>- 문학작품으로 당시 사회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     |            |                |        |
| 학습자료                 | 교 사  |     |            | 학 생            |        |
|                      | 교과서, 활동지, PPT, ox카드, 시각자료  |     |            | 교과서, 활동지, 필기도구 |        |

| 학습 단계            |                      |            | 교 수 · 학 습 활 동   |   | 수업<br>형태<br>및<br>매체 | 도달점 및<br>유의점               |
|------------------|----------------------|------------|---|---|---------------------|----------------------------|
| 단계               | 수업<br>요항             | 시간         | 교 사   | 학 생                                     |                     |                            |
| 도입<br>4'<br>(8') | 상호<br>인사             | 1'<br>(2') | ▷ 인사 및 학습 환경 조성.<br>학습 활동지 배부   | ▷ 학생들은 조를 만들어 수업을<br>준비한다.              |                     |                            |
|                  | 전시<br>학습<br>과제<br>확인 | 2'<br>(4') | ▷ 전시 학습의 과제인 ‘난장이가<br>쏘아올린 작은 공’ 읽어오기를<br>학생들이 잘 수행했는지 퀴즈를<br>통해 확인한다. 학생들에게 OX표<br>를 나누어준다.<br><br>- 지난 시간에 내준 과제를 기억하<br>나요?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br>읽고 오늘 해볼 토의 주제에 대해, 편<br>견 없이 생각해보라고 했었죠?<br>- 그렇다면 오늘 수업도 <난쏘공>의 내<br>용을 확인해보는 OX퀴즈로 시작해볼<br>까요? | ▷ <난쏘공>의 내용을 떠올리며<br>퀴즈를 푼다.<br>(학생 대답) | ox카드<br>PPT         | 전시 학습<br>내용을 상기<br>할 수 있다. |
|                  |                      |            |   | ▷ 학생들의 과제 수행을 파악한 후                     | ▷ 학습 목표를 읽는다.       |                            |

| 학습 단계                        |                     |          | 교 수 · 학 습 활 동   |   | 수업 형태 및 매체            | 도달점 및 유의점                                   |
|------------------------------|---------------------|----------|---|---|-----------------------|---|
| 단계                           | 수업 요항               | 시간       | 교 사   | 학 생   |                       |   |
| 전개<br>1<br>토의<br>10'<br>(42) | 학습 활동 소개 및 학습 목표 알기 | 1' (4')  | <p>이번 수업의 학습활동을 소개하고 학습목표를 알린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1. 토의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타인과 공유할 수 있다.</p> <p>2. 문학작품으로 당시 사회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p> <p>3. 작품 구조 분석을 통해 깊이 있는 읽기를 할 수 있다.</p> </div>   |   |                       |   |
|                              | 토의 전                | 2' (12') | <p>▷ 토의 전, 학습활동지에 있는 난장이의 죽음 장면을 다시 읽고, 토의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학습활동지에 적을 수 있도록 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토의 주제</p> <p>난장이의 죽음은 난장이 자신의 때문일까? 사회의 구조 문제 때문일까?</p> </div> <p>- 여러분 학습 활동지 다들 받으셨죠? 학습활동지에 나와 있는 &lt;난쏘공&gt; 본문 (가)를 통해 주요장면을 다시 생각해보고, 토의 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활동지 1번에 적어 정리해봅시다.</p> <p>사회의 책임인지, 난장이 개인적 책임인지 꼭 한쪽 입장을 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면 됩니다. 알겠죠?</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b>학습활동 1.</b></p> <p>본문 (가)를 읽고, 토의 주제 ‘난장이의 죽음은 난장이 개인의 문제 때문일까? 사회의 구조 문제 때문일까?’ 에 대해 토의 전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자.</p> </div> | <p>▷ 학습활동지에 수록된 본문을 읽고, 토의 전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활동지에 쓴다.</p> | <p>학습 활동지 교과서 PPT</p> | <p>토의 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토의를 준비할 수 있다.</p> |
|                              |                     |          | <p>▷ 토의 규칙과 유의점을 상기시킨다. (PPT)</p>   | <p>▷ 토의에 대해 질문한다.</p>                                 |                       |   |

| 학습 단계                                 |          |             | 교 수 · 학 습 활 동  |  | 수업<br>형태<br>및<br>매체       | 도달점 및<br>유의점                                  |
|---------------------------------------|----------|-------------|--|--|---------------------------|---|
| 단계                                    | 수업<br>요항 | 시간          | 교 사  | 학 생  |                           |   |
|                                       | 토의<br>중  | 6'<br>(20') | <b>학습활동 2 .</b><br>위의 주제에 대해 친구들과 토의해<br>보고 나의 생각과 어떻게 다른지 비<br>교해보자.<br>▷ 토의 중 학생의 말에 개입하지<br>않고, 토의의 진행과 정리를 돕는<br>역할을 한다.<br>▷ 학생 구성원 간에 원활하고 자유<br>로운 토의가 이루어지도록 지도한<br>다.   | ▷ 토의를 진행한다.  | 학습 활<br>동 지<br>교과서        | 다양한 의견<br>을 주고받을<br>수 있도록<br>지도한다.            |
|                                       | 토의<br>후  | 2'<br>(10') | ▷ 토의 전반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br>을 정리하고, 논평한다.<br><br>▷ 작품 특징에 대한 질문을 통해<br>생각을 유도하며 다음 시간 활동<br>을 준비한다.<br><br><b>▷ 쉬는 시간 명시</b><br>- 여러분, 토의를 아주 잘 해주었어요.<br>여러분의 생각처럼 난장은 너무 큰<br>이상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고, 힘<br>든 사회 현실 때문에 죽음을 맞이한<br>걸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난쏘<br>공>을 쓴 조세희는 어떤 관점에서, 어<br>떤 구조를 가지고 이 책을 썼는지 잠<br>시 쉬고, 이어서 다음 시간에 알아보<br>도록 해요 | ▷ 친구들의 의견과 자신의 의견을<br>비교하며 정리한다.<br><br>▷ 토의와 이어지는 학습활동이 무<br>엇인지 파악하고 교사의 질문에<br>대해 생각한다. | 학습 활<br>동 지<br>교과서<br>PPT | 다음 시간<br>학습 활동<br>을 이해할<br>수<br>있도록 지도<br>한다. |
| <b>전개<br/>2<br/>작품<br/>분석<br/>10'</b> |          |             | <b>2교시 수업 &gt;</b><br>▷ 질문을 통해 작품 속 동화적<br>대립에 대한 이해를 유도한다.<br><br>• 작가는 왜 주인공을 ‘난장이’라고<br>불렀을까요?  | ▷(다양한 대답)  |                           |   |

| 학습 단계 |                     |          | 교 수 · 학 습 활 동   |     | 수업 형태 및 매체  | 도달점 및 유의점   |
|-------|---------------------|----------|---|-----|---|---|
| 단계    | 수업 요항               | 시간       | 교 사   | 학 생 |   |   |
| (40') | 작가의 의도 및 작품 특징 파악하기 | 5' (2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럼 이런 힘없는 난장은 어떤 사람들과 대립적 구조를 갖고 있다고 생각되나요?</li> <li>• 자, 여기서 질문 한번 해볼게요. 난쟁이와 거인, 선악구조는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는 구조일까요?</li> <li>• 자, 좀 더 생각해서 난장이 같은 인물은 어디에 많이 나오나요?</li> </ul> <p>- 그런데 난쏘공의 동화적 성격은 선악구조, 즉 (더 나아가) 대립적 구조 말고도, ‘환상성’이라는 특징을 가져요. 조금 어려운 개념이죠? 선생님이 좀 더 자세히 설명해보도록 할게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 여러분 동화의 특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li> <li>• 그렇다면 시공간적 배경은 어떻게?</li> <li>• 이러한 비현실적 인물과 시공간적 배경은 여러분에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나요?</li> <li>- 맞아요! 여러분이 느끼는 그러한 동화의 성격을 좀 더 다듬어진 말로 말한다면, ‘환상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난쏘공에서는 동화적인 대립구조를 통해 현실과 동떨어진듯한, 비현실적 분위기를 자아내는 환상성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동화적 요소가 있는 부분을 본문에서 찾아보는 활동을 할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구조를 작가는 어떠한 이유로 사용했는지도 생각해보도록 합시다.</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width: fit-content;">동화적 요소</div> |     | <p>학습 활동 지 교과서 PPT</p> <p>학습 활동 지 교과서 PPT 시 각 자</p> | <p>작품의 동화적 요소를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질문으로 유도한다.</p> <p>학생들이 학습활동을 이해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p> |

| 학습 단계 |          |          | 교 수 · 학 습 활 동   |  | 수업 형태 및 매체      | 도달점 및 유의점   |
|-------|----------|----------|---|--|-----------------|-------------|
| 단계    | 수업 요항    | 시간       | 교 사   | 학 생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립적 구조</li> <li>- 환상성</li> </ul> <p>▷ 학습활동지에 질문에 대한 답을 적고, 조원들과 의견을 나눠볼 시간을 충분히 준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b>학습활동 3.</b><br/>본문 (가)~(다)의 밑줄 친 문장 속 단어들은 동화적 대립구조를 보이는 것들이다.<br/>대립한다고 생각되는 단어끼리 배열해보자. 또한 이러한 단어들의 동화적 대립구조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조원들과 생각해보자.</p> </div> <p>▷ 교실 앞에서 활동한 결과를 발표하게 한다.</p> <p>▷ 발표한 결과를 바탕으로 &lt;난쏘공&gt;의 동화적 요소에 대해 설명한다.</p> | <p>▷ 활동지 3번에 대해 주어진 본문을 읽고, 동화적 요소가 드러난 단어를 찾아 조원들과 의견을 공유한다.</p> <p>▷ 대표가 나와 단어를 분류해보고 조에서 생각한 의미에 대해 발표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대답)</li> </ul> <p>▷ 동화적 요소에 대해 이해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답 또는 질문)</li> </ul> | 료               | 다.          |
|       | 시대 상황 알기 | 5' (15') | <p>▷ 시대적 배경을 설명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러분 동화적 요소에 대한 활동을 아주 잘 해주었어요. 그렇다면, 동화적 요소를 사용하며 난쏘공을 창작한 조사회는 어떤 시대를 배경으로 이 책을 지었는지, 확인해 볼까요?</li> </ul> <p>▷ 영상자료를 제시한 뒤, 작품 속 시대상황이 드러나는 인상적 장면을 찾는 활동을 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b>학습활동 4.</b><br/>1970년대의 사회상을 나타내는 동영상과 사진을 보고, &lt;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p> </div>   | <p>▷ 시대적 배경에 대해 이해하고, 본문에서 인상적 장면을 찾아본다.</p> <p>▷ 조별로 발표한다.</p>  | 학습 활동 지 교과서 PPT |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 |

| 학습 단계              |          |            | 교 수 · 학 습 활 동  |                                   | 수업 형태 및 매체           | 도달점 및 유의점                        |
|--------------------|----------|------------|--|-----------------------------------|----------------------|----------------------------------|
| 단계                 | 수업 요항    | 시간         | 교 사  | 학 생                               |                      |                                  |
|                    |          |            | <p>은 공&gt;에서 사회상이 드러나는 인상적인 장면을 찾아 발표해보자.</p> <p>- 1970년대의 시대상황에 대해 조금은 이해가 가나요? 난장이는 달나라에 가고 싶은 희망을 품고 쇄공을 던지지만 비극을 맞이하게 되죠. 작가는 그만큼 현실 사회가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들었음을, 작품에서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마지막 학습활동으로 우리는 시대상황이 드러나는 인상적 장면을 작품 속에서 찾아 볼 거예요. 이 활동은 다음 수업 때 진행할 NIE수업의 자료로 사용할겁니다.<br/>(사진, 동영상)</p>   |                                   | 동지 교과서<br>PPT<br>동영상 | 고, 다음시간 활동과 연계시켜 진행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 마무리<br>3'<br>(10') | 본시 학습 정리 | 2'<br>(8') | ▷ PPT를 통해 수업 내용을 정리한다.   | ▷ 수업내용을 교사와 함께 맞춰본다.              | PPT                  |                                  |
|                    | 다음 차시 예고 | 1'<br>(2') | <p>▷ PPT를 통해 다음 차시의 수업활동과 학습 목표를 예고한다.</p> <p>▷ 다음 차시 수업활동인 NIE에 대해 설명한다.</p> <p>- 여러분 오늘 수업 너무 잘해주었어요. 토의와 학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어 선생님이 너무 뿌듯하네요. 이번 시간이 작품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목표였다면, 다음시간에는 NIE 활동을 통해 작품의 사회상과 현대의 사회상을 비교해보는 것이 목표입니다. NIE는 신문이나 인터넷 자료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창작물을 만들어 보는 활동이에요. 이는 만화, 신문 등 다양한 형식으로 구성할 수 있어요.</p> <p>NIE의 구성을 머릿속으로 간단히 생각하고, 다음시간에 조별로 의논해보</p> | ▷ 다음 시간 활동을 이해한다.<br>- (대답 또는 질문) |                      |                                  |

| 학습 단계       |          |    | 교 수 · 학 습 활 동  |     | 수업<br>형태<br>및<br>매체 | 도달점 및<br>유의점 |
|-------------|----------|----|--|-----|---------------------|--------------|
| 단계          | 수업<br>요항 | 시간 | 교 사  | 학 생 |                     |              |
|             |          |    | 도록 해요.   |     |                     |              |
| <b>평가기준</b> |          |    | ▷ 토의를 통해 책 내용에 대해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고, 친구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다.<br>▷ 작품의 구조와 당시 사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작가의 의도 및 주제를 알 수 있다. |     |                     |              |



## <학습 활동지 본문>

(가)

아버지는 오른손을 반쯤 올렸다 내렸다. 왼손에는 책이 들려 있었다. 지섭의 책에 아버지의 손해가 까맣게 묻었다. 아버지와 지섭은 우리에게 대기권 밖을 날아다니는 사람들로 보였다. 두 사람은 하루에도 몇 번씩 달을 왕복했다.

"살기가 너무 힘들다."

아버지가 말했었다.

"그래서 **㉠ 달에** 가 천문대 일을 보기로 했다. 내가 할 일은 망원 렌즈를 지키는 일이야. 달에는 먼지가 없기 때문에 렌즈 소재 같은 것도 할 필요가 없지. 그래도 렌즈를 지켜야 할 사람은 필요하다."

"아버지, 도대체 그런 일이 가능할 것 같아요?"

내가 말했다.

"넌 이때까지 뭘 배웠니 ?

아버지가 말했다.

"뉴우턴이 그 중요한 법칙을 발표하고 삼 세기가 지났어. 너도 그걸 배웠지? 국민학교 때부터 배웠어, 그런데 우주에 관한 기본 법칙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말하는구나."

"그런데 누가 아버지를 달에 모시고 가겠대요?"

"지섭이 미국 휴스턴에 있는 존슨 우주 센터에 편지를 냈다. 그곳 관리인 로스씨가 답장을 보내올 거야. 후년에 우주 계획 전문가들과 함께 달에 가게 될 거다."

"그 책을 돌려주세요."

내가 말했다.

"그리고, 그 사람 말을 믿지 마세요. 그는 미쳤어요."

"이 책의 사진을 봐라. 이 사람은 프란시스 베이컨이고, 이 사람은 로버트 고다드다. 당시 사람들이 미치광이로 지목했던 인물들이야. 이 미친 사람들이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아니?"

"몰라요."

'썰 학교에서 죽은 교육을 받았어."

"어쨌든 그 책을 돌려주세요."

"너희들은 내가 이 땅에서 끝까지 고생하다 바짝 마른 몰골로 죽기를 바라고 있지? 힘든 일에 눌러 허위적거리다가 숨을 거두기를 바라고 있는 것 아니냐?"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너희들은 왜 지섭에게 아무 것도 배울 생각을 하지 않니 ?

"도대체 뭘 배우라는 말씀예요?"

"로스씨의 편지를 받기 전에 보여 쓸 것이 있다. 지섭에게 말해서 쇠공을 쏘아 올려 보여주마."

"없지?"

"네."

(중략)

그런데 - 나는 일어날 수가 없었다. 눈을 감은 채 가만히 누워 있었다. 다친 벌레처럼 모로 누워 있었다. 숨을 쉴 수 없었다. 나는 두 손으로 가슴을 쳤다. 혈린 집 앞에 아버지가 서 있었다. 아버지는 키가 작았다. 어머니가 다친 아버지를 업고 골목을 돌아 들어왔다. 아버지의 몸에서 피가 뚝뚝 흘렀다. 내가 큰 소리로 오빠들을 불렀다. 오빠들이 뛰어나왔다. 우리들은 마당에 서서 하늘을 쳐다보았다. **㉢까만**

쇠공이 머리 위 하늘을 일직선으로 가르며 날아갔다. 아버지가 벽돌 공장 굴뚝 위에 서서 손을 들어 보았다. 어머니가 조각마루 끝에 밥상을 올려놓았다.

의사가 대문을 들어서는 소리가 들렸다. 아주머니가 나의 손을 잡았다. 아아아아아아아 하는 울음이 느리게 나의 목을 타고 올라왔다.

"울지 마, 영희야."

큰오빠가 말했었다.

"제발 울지 마. 누가 듣겠어."

나는 울음을 그칠 수 없었다.

"큰오빠는 화도 안 나?"

"그치라니 까. "

"아버지를 난장이라고 부르는 악당은 죽여 버려."

"그래. 죽여 버릴게."

"꼭 죽여."

"그래. 꼭."

"꼭."

#### (나)

영희의 눈에 다시 눈물이 괴었다 커도 마찬가지였다. 계집애들은 잘 울었다. 내가 영희 옆으로 다가갔을 때 영주는 장독대 바닥을 가리켰다. 장독대 시멘트 바닥에 -명희 언니는 큰 오빠를 좋아한다-고 써어 있었다. 집을 지을 때 남긴 낙서였다. 영희가 웃었다. 우리에게는 그 때가 제일 행복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도랑에서 돌을 쥘 왔다. 그것으로 계단을 만들고, 벽에는 시멘트를 쳤다.. 우리는 아직 어려 힘든 일을 못 했다. 그래도 할 일이 많았다. 우리는 며칠 동안 학교에 가지 않았다. 하루하루가 즐거웠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몇 차례씩 떼를 지어 동네를 돌았다. 그때만은 더러운 옷을 입은 어린아이들도 울음을 그쳤다.

음박지르는 주인의 기세에 놀린 개들도 짖기를 멈추고 뒤로 물러섰다. 은 동네가 조용해졌다. 갑자기 평화스러워져 어안이 병병할 정도였다. 나는 우리 동네에서 풍기는 냄새가 창피했다. 그들은 아버지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그들과 악수할 때 아버지는 발뒤꿈치를 들었다. 아버지가 어떤 자세를 취했건 상관 없었다. ㉞ 난쟁이 아버지가 ㉟ 우리들에게는 거인처럼 보였다.

#### (다)

그들은 올 때처럼 곧바로 공터를 가로질러 갔다. 동사무소를 지나 큰길 쪽으로 나가는 것이 보였다. 아버지가 돌아서더니 들고 있던 책을 형에게 주었다. 아버지가 그들을 향해 걸어갔다. 아버지의 작은 그림자가 아버지를 따라갔다 나는 더 이상 건딜 수가 없었다. 잠이 나를 놀려 왔다. 나는 부서진 대문 한 짝을 끌어내 그 위에 엮드렸다. 햇살을 등에 느끼며 나는 서서히 잠에 빠져들었다. 우리 식구와 지섭을 제외하고 세계는 모두 이상했다. 아니다. 아버지와 지섭이마저 좀 이상했다. 나는 햇살 속에서 꿈을 꾸었다. ㉠ 영희가 팬지꽃 두 송이를 ㉡ 공장 폐수 속에 던져 넣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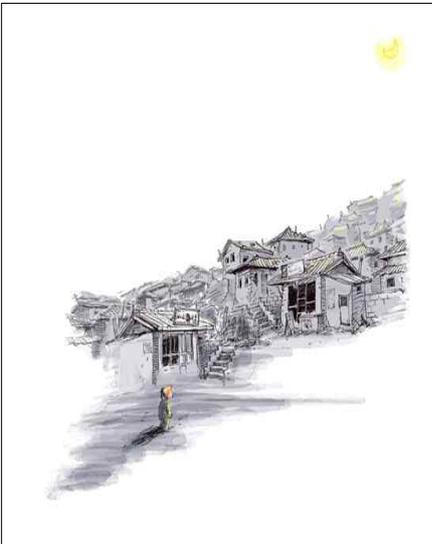
# <학 습 활 동 지>

2학년 반 번 이름 :

|       |  |       |                |
|-------|--|-------|----------------|
| 단 원 명 | 1. 사회를 보는 눈, 소통하는 우리<br><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 활 동 일 | 2016. 10. 7. 금 |
| 성취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의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타인과 공유할 수 있다.</li> <li>- 작품의 구조 분석을 통해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다.</li> <li>- 문학작품으로 당시 사회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li> </ul> |       |                |



/ . 본문 (가)를 읽고, 토의 주제 ‘**난장이의 죽음은 난장이 개인의 문제 때문일까? 사회의 구조 문제 때문일까?**’에 대해 토의 전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자.



.....

.....

.....

.....

.....

.....

.....

.....

.....

.....



2 . 위의 주제에 대해 친구들과 토의해보고 나의 생각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보자.



3. 본문 (가)~(다)의 밑줄 친 문장 속 단어들은 동화적 대립구조를 보이는 것들이다. 대립한다고 생각되는 단어끼리 배열해보자. 또한 이러한 단어들의 동화적 대립구조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조원들과 생각해보자.

|  |  |
|--|--|
|  |  |
|  |  |
|  |  |



4. 1970년대의 사회상을 나타내는 동영상을 보고,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서 사회상이 드러나는 인상적인 장면을 찾아 발표해보자.



☆ 2팀 : 십구문반 팀원 : 14이우빈, 15김소연, 15조윤진, 15홍난금

◆ 교수·학습 계획안

# 교수·학습 지도안

## 2. 삶과 문학 (2) 가정

3학년 이우빈, 2학년 김소연, 조윤진, 홍난금

|          |  |  |   |                         |  |             |     |
|----------|--|--|---|-------------------------|--|-------------|-----|
| 단원       | (2) 가정   | 대상   | 중학교 2학년   | 일시                      | 2016년 10월 7일   | 차시          | 1/2 |
| 학습 목표    | 1. 작품에 쓰인 시어의 의미를 알고, 자신의 경험과 연결 지어 작품을 이해할 수 있다.<br>2. 이를 바탕으로 작품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                 |  |   |                         |  |             |     |
| 학습 매체    | 교사   |  |   | 학생                      |  |             |     |
|          | 교과서, 수업지도안, ppt, 영상자료, 교구  |  |   | 교과서, 활동지/평가지, 필기도구, 색연필 |  |             |     |
| 교수·학습 방식 | 강의식, 발표식, 문답식, 모둠식   |  |   |                         |  |             |     |
| 모둠 구성    | 4인 1조로 총 6모둠으로 진행<br>- 모둠구성은 교사가 사전에 과목에 대한 학생의 흥미와 수업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구성<br>- 지난 수업시간에 미리 학생들이 모둠별로 앉을 수 있도록 지도하였음 |  |   |                         |  |             |     |
| 과정       | 학습 내용  | 교수 - 학습 활동   |   |                         |  | 참고자료 및 유의사항 | 시간  |
|          |  | 교사 활동  | 학생 활동   |                         |  |             |     |
| 도<br>입   | 상호 인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사한다.</li> <li>학생들의 안부를 묻는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사한다.</li> <li>함께 이야기를 나눈다.</li> </ul>   |                         |  | 3'<br>(3')  |     |
|          | 전시 학습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난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질문을 통해 상기시킨 후 간단하게 요약 정리한다.</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토끼전' - 우리 조상들의 삶에 대한 지혜와 교훈                 </div>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난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떠올리며 교사의 간단한 질문에 대답한다.</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pt, 교과서</li> <li>대답에 따라 지난 수업에 대한 이해도를 파악한다.</li> </ul>                                    |             |     |
|          | 동기 유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t;영상자료 시청&gt;</li> <li>본시 학습에 들어가기 전 영상자료를 보여준다.</li> <li>- 드라마 '응답하라 1988'</li> <li>영상을 본 후 학생들의 생각과 느낀 점을 간단히 물어본다.</li> <li>이외에 가족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노래나 영상물을 접한 경험이 있는지 물어본다.</li> <li>&lt;작품 소개&gt;</li> <li>오늘 배울 작품에 대해 소개한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상을 본 후 자신의 감상을 이야기한다.</li> <li>손을 들고 교사의 질문에 대답한다.</li> <li>교사의 설명을 들으며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을 짐작한다.</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pt, 영상자료</li> <li>영상자료를 주의 깊게 볼 수 있도록 지도한다.</li> <li>학생들이 발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한다.</li> </ul> | 6'<br>(9')  |     |

|        |                |   |  |  |             |
|--------|----------------|---|--|--|-------------|
|        |                | 박목월, '가정'   |  |  |             |
|        | 학습<br>목표<br>제시 | <p><b>&lt;학습목표 확인&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목표를 제시하고 학생들이 소리 내어 따라 읽도록 지시한다.</li> </ul> <p>1. 작품에 쓰인 시어의 의미를 알고, 자신의 경험과 연결 지어 작품을 이해할 수 있다.<br/>2. 이를 바탕으로 작품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p> <p><b>&lt;수업의 전반적 흐름 제시&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업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소개한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목표를 확인하고, 교사의 신호에 따라 큰 소리로 따라 읽는다.</li> <li>• 교사의 설명을 들으며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을 짐작한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pt, 교과서</li> </ul>   | 1'<br>(10') |
|        | 시<br>읽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을 소리 내어 읽을 학생이 있는지 물어보고, 낭송하게 한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 학생이 시를 낭송하고, 다른 학생들은 마음속으로 같이 따라 읽는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pt, 교과서</li> </ul>   | 2'<br>(12') |
| 전<br>개 | 시<br>이해        | <p><b>&lt;시 감상&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들에게 시를 읽고 느낀 점을 물어본다.</li> <li>• 학생의 대답을 바탕으로, 시의 주제에 대해 설명한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를 읽고 느낀 점을 자유롭게 대답한다.</li> <li>• 교사의 설명을 바탕으로 시의 주제를 파악한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pt, 교과서</li> </ul>   | 2'<br>(14') |
|        |                | <p><b>&lt;학습활동 1 : 주요 시어에 대한 의미 파악하기&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동지를 배부하고, 학습활동 1에 대해 안내한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사의 안내에 따라 개인 활동지를 작성한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동지, 교과서</li> <li>• 학생들이 활동지 작성에 부담이 없도록 격려해준다.</li> </ul>  | 3'<br>(17') |
|        |                | <p><b>&lt;시 이해&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의 학습활동에 대한 답을 확인하는 질문을 한다.</li> <li>• 시어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 설명한다.</li> </ul> <p>교구를 이용해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경험을 상기시킨다.</li> <li>• 문학이 자신의 삶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게 한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이 작성한 활동지 내용을 발표한다.</li> <li>• 교사의 질문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손들고 이야기한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pt, 교과서, 교구</li> <li>• 학생들의 반응을 확인을 통해 이해도를 파악하면서 설명한다.</li> <li>• 학생들이 발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한다.</li> </ul> | 5'<br>(22') |

|               |  |   |   |   |             |
|---------------|--|---|---|---|-------------|
| 모둠<br>활동      | <p><b>&lt;학습활동 2 : 작품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그림으로 표현하기&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둠 활동지를 배부하고, 학습활동 2에 대해 안내한다.</li> <li>• 예시 작품과 그에 대한 설명을 통해 학생들의 모둠활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li> <li>• 원활히 모둠활동이 이루어지는지 교실을 돌아다니며 확인하며 완성된 작품은 사진으로 찍어 학급밴드에 올린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모둠별로 모여 자신의 경험을 공유한다.</li> <li>• 조원들의 의견을 정리하여 그림을 완성한다.</li> <li>• 교사의 예시작품을 참고하여 활동을 수행한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pt, 활동지, 색연필</li> <li>• 모둠활동 시 소란스러워지지 않도록 지도한다.</li> </ul> | 12'<br>(34')  |             |
|               | <p><b>&lt;모둠활동 발표&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직 완성하지 못한 작품은 수업이 끝나고 완성하여 사진으로 찍어 학급밴드에 올리도록 지도하고, 온라인 상에서 상호 평가하도록 안내한다.</li> <li>• 완성된 모둠의 그림을 발표하도록 한다.</li> <li>• 학생들의 발표에 대해 적절한 호응과 칭찬을 한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모둠의 대표가 교실 앞으로 나와 발표를 하고, 다른 학생들은 경청한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동지</li> <li>• 학생들이 주의 집중하여 발표를 듣도록 지도한다.</li> </ul>         | 5'<br>(39')   |             |
|               | <p><b>&lt;상호 피드백&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표에 대해 학생들 간의 상호 평가를 유도한다.</li> <li>• 학생들의 상호 평가에 대해 적절한 호응과 칭찬을 한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 받는다.</li> </ul>   |   | 2'<br>(41')   |             |
| 정리<br>및<br>확인 | 자기<br>평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을 마무리하며 자기평가 시간을 안내한다.</li> <li>• 평가지를 배부하고, 학생들이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사의 지도에 따라 자기 평가지를 작성한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지</li> </ul>   | 1'<br>(42') |
|               | 학습<br>내용<br>정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목표를 다시 한 번 확인한다.</li> <li>• ‘가정’의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하며, 문학작품에서 가족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음을 상기한다.</li> <li>• 더불어 문학은 삶과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한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한 내용을 상기하며 학습 목표와 연관 지어 정리한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pt</li> <li>• 학생들이 이번 차시 내용을 이해하였는지 반응을 확인하며 설명한다.</li> </ul> | 3'<br>(45') |
|               | 차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 시간에 학습할 내용을 안내한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사의 안내에 따라 다음 차시 학</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pt</li> </ul>   |             |

|  |       |                                |             |  |  |
|--|-------|--------------------------------|-------------|--|--|
|  | 예고    | 다.<br>시인과 시대적 배경, 시에 쓰인 비유와 상징 | 습 내용을 숙지한다. |  |  |
|  | 상호 인사 | • 인사한다.                        | • 인사한다.     |  |  |

## 학습활동 1 : 개인 활동 지

|         |  |    |   |    |
|---------|--|----|---|----|
| 단원명     | 2. 삶과 문학 (2) 가정                                | 학년 | 반 | 이름 |
| 관련 학습목표 | 작품에 쓰인 시어의 의미를 알고, 자신의 경험과 연결 지어 작품을 이해할 수 있다. |    |   |    |

- ◆ ‘가정’ 속에 나타난 주요 시어의 의미 파악하기 활동  
 - <보기>에 나오는 시어들을 의미에 따라 분류해봅시다.

< 보 기 >

|   |   |   |
|---|---|---|
|    |   |   |
| 눈과 얼음의 길  | 내 신발은 십구 문 반 (十九文半)*  |   |
|   |  |   |
| 아홉 마리의 강아지  | 굴욕과 굶주림과 추운 길   |   |
|  |  |  |
| 얼음과 눈으로 벽을 짜 올린   | 미소하는 내 얼굴   | 연민한 삶의 길  |

- (1) 가족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 \_\_\_\_\_
- (2) 고달픈 삶의 현실 \_\_\_\_\_
- (3) 가장으로서 아버지의 책임감 \_\_\_\_\_

\* 십구 문 반의 ‘문(文)’ : 신발의 크기를 나타내는 길이 단위

## 학습활동 2 : 모듬 활동지

|         |                                |     |  |
|---------|--------------------------------|-----|--|
| 단원명     | 2. 삶과 문학 (2) 가정                | 모듬명 |  |
| 관련 학습목표 | 작품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 |     |  |

◆ 시 <가정>을 다시 한 번 읽고 다음 활동을 해 봅시다.

1. 자신이 가족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소재를 떠올려보고, 그것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조원들과 함께 이야기 해봅시다.

---



---



---



---

2. 조원들의 의견 중 하나를 정하여, 조원들과 함께 그림으로 자유롭게 표현해봅시다.

## 자 기 평 가 지

|     |                 |    |  |   |  |    |  |
|-----|-----------------|----|--|---|--|----|--|
| 단원명 | 2. 삶과 문학 (1) 가정 | 학년 |  | 반 |  | 이름 |  |
|-----|-----------------|----|--|---|--|----|--|

### ◆ 자기평가

- 이번 수업시간에 배운 박목월 시인의 '가정'을 다시 한 번 읽어보고, 자신의 학습 성취도를 파악해봅시다.

| 성취도<br><br>평가항목                          | 평가 ( 해당란에 √ 표시 ) |         |         |         |               |
|--|------------------|---------|---------|---------|---------------|
|  | 5<br>매우<br>우수    | 4<br>우수 | 3<br>보통 | 2<br>미흡 | 1<br>매우<br>미흡 |
| 시 '가정'에 쓰인 시어들의 의미를 알고 이를 설명할 수 있다.      |                  |         |         |         |               |
| 작품을 읽고 이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다.         |                  |         |         |         |               |
| 모둠활동 중 다른 조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                  |         |         |         |               |
| 다른 모듬의 발표를 귀 기울여 듣고, 자신의 경험을 되짚어 보았다.    |                  |         |         |         |               |
| 합계                                       |                  |         |         |         |               |

☆ 3팀 : 훈민정음 팀원 : 12김도현 12박정하 12이상철 12정승헌 12최석우

◆ 교수·학습 계획안

| 국어과 본시(1/2차시) 수업안 |   |     |                  |                |       |
|-------------------|---|-----|------------------|----------------|-------|
| 단 원               | 1. 고전문학의 아름다움<br>(2) <최척전> / 조위한  |     |                  |                |       |
| 실시대상              | 2학년 6반 40명  | 일 시 | 2016. 10. 07 (金) | 장 소            | 사범대강당 |
| 성취기준              | [12 02-02] 작품을 작가, 사회 문화적 배경 상호텍스트성 등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감상한다.<br>[12 02-04] 작품을 공감적, 비판적,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호 소통한다.                |     |                  |                |       |
| 학습목표              | <최척전>을 통해 문학 속 인물들의 상처에 대해 공감한다.<br><최척전>과 다른 매체와의 공통점을 통해 문학이 주는 치유의 기능을 안다.<br>문학이 가지는 치유의 기능을 바탕으로 문학의 생산자가 되어 타인과 공감하는 능력을 기른다. |     |                  |                |       |
| 학습자료              | 교 사   |     |                  | 학 생            |       |
|                   | 교과서, 활동지, PPT, 영상자료   |     |                  | 교과서, 활동지, 필기도구 |       |

| 학습 단계      |             |            | 교 수 · 학 습 활 동  |  | 수업<br>형태<br>및<br>매체 | 도달점 및<br>유의점        |
|------------|-------------|------------|--|--|---------------------|---------------------|
| 단계         | 수업<br>요항    | 시간         | 교 사  | 학 생  |                     |                     |
| 도입<br>(9') | 인사          | 2'<br>(2') | ▷ 인사 및 학습 환경 조성.<br>▷ <최척전> 내용에 대한 선수학습 수준 확인<br>1. 내용이해 관련 기입형 문항 제시<br>1) 역사적 배경<br>2) 주인공의 행선지  | ▷ 교사의 안내에 따라 기입형 문항 풀이<br><br><br><br><br><br><br><br><br><br>▷ 학습목표의 확인 | PPT                 | 전시 학습 내용을 상기할 수 있다. |
|            | 전시 학습<br>상기 | 5'<br>(7') | ▷ 학습목표 제시<br>1. <최척전>을 통해 전쟁이 주는 고통에 대해 공감한다.<br>2. <최척전>과 다른 매체와의 공통점을 통해 문학이 주는 치유의 기능을 이해한다.<br>3. 문학이 가지는 치유의 기능을 바탕으로 문학의 생산자가 되어 타인과 공감하는 능력을 기른다. |  |                     |                     |
|            | 학습 동기<br>유발 | 2'<br>(9') | ▷ <최척전> 인물들의 행적을 살피기 위한 교구 제시 및 활동 방법  |  |                     |                     |

| 학습 단계      |             |   | 교수·학습 활동  |                                   | 수업 형태 및 매체                          | 도달점 및 유의점                  |
|------------|-------------|---|---|-----------------------------------|-------------------------------------|----------------------------|
| 단계         | 수업 요항       | 시간  | 교사  | 학생                                |                                     |                            |
| 전개 (35')   | 전개 1        | 3'  | <p>안내</p> <p>▷ 학습 활동지1에 대한 활동 안내</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p>1. 최척의 행적과 감정<br/>2. 옥영의 행적과 감정</p> </div> |                                   | 학습 활동지                              | 유도되도록 유의한다.                |
|            | 활동 안내       | (12')   |   | ▷ 교사의 안내에 따라 학습 활동지 1을 조별로 풀이     |                                     | 학습활동 1의 방법에 대해 알 수 있다.     |
|            | 전개 2        | 5'  | <p>▷ 학습 활동지 1의 발표 유도(두 조 정도를 선택)</p>  | ▷ 학습 활동지1의 조별 발표(제시된 말판 등 교구를 활용) | 칠판 및 교구                             | 소설 속 인물의 행적과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
|            | 인물의 행적 표시하기 | (17')   | <p>▷ 학습 활동지1의 두 번째 문항을 활용하여 인물이 느낀 감정에 대한 대답을 유도</p>  |                                   | 학습 활동지                              | 발표 시 산만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
| 전개 3       | 10'         | <p>▷ PPT 자료를 활용하여 시·청각 자료 제시</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p>1. &lt;조선왕조실록&gt; 웹툰<br/>2. &lt;최종병기 활&gt; 영화</p> </div> | ▷ 학습 활동지1의 두 번째 문항에 따라 인물의 감정을 추측하여 대답  | 동영상 자료<br>PPT                     | 과거 전쟁이 사람들에게 주었던 아픔을 느낄 수 있다.       |                            |
| 전개 4       | 3'          | <p>▷ 제시한 자료의 의미를 제시(전쟁의 참상과 아픔)</p> <p>▷ 질문을 통해 우연성에 대한 대답을 유도</p>  | ▷ 교사가 제시하는 자료를 시청   |                                   | 고전소설의 작가가 우연성을 작품에 가미시킨 이유를 알 수 있다. |                            |
| 우연성의 이유 알기 | (30')       |   | ▷ 교사의 비계설정에 따라 우연성의 이유 도출 및 <최척전>의 '치유의 기능'에 대한 이해  |                                   | PPT                                 |                            |

| 학습 단계       |          |          | 교수·학습 활동   |  | 수업 형태 및 매체 | 도달점 및 유의점                          |
|-------------|----------|----------|--|--|------------|------------------------------------|
| 단계          | 수업 요항    | 시간       | 교사   | 학생   |            |                                    |
| 정리 (6)      | 전개 5     | 7' (3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최척전&gt;이 가지는 ‘치유의 기능’을 도출</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조위한의 전쟁 경험 및 창작 의도 도출</div>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사의 안내에 따라 다양한 매체를 고려하여 대답</li> </ul> | 학습 활동지     | 문학이 가지는 치유의 기능을 다른 매체와 연관 지을 수 있다. |
|             | 전개 6     | 7' (4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램 &lt;힐링캠프&gt;를 통한 문학이 주는 ‘치유의 기능’을 비유적으로 설명</li> <li>▷ 문학이 주는 ‘치유의 기능’이 타 매체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질문</li> <li>▷ 학생이 제시한 예시를 통해 ‘치유의 기능’이 창작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소개하며 학습활동 3을 유도</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1. 10대들의 고민을 키워드로 제시<br/>2. ‘시’쓰기 활동 및 고민 공유 활동</div> |  |            |                                    |
|             | 본시 학습 정리 | 4' (4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의 활동에 대한 교사의 피드백</li> <li>▷ 선행 학습활동을 통해 &lt;최척전&gt;이 가지는 의의를 제시</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1. 고민의 공유는 독자와 작자 모두에게 전이됨<br/>2. &lt;최척전&gt;을 다양한 매체와의 관계를 통해 봄으로써 문학이 가지는 치유성에 대한 폭넓은 안목을 가짐</div>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시 학습 &lt;박씨전&gt;에 대한 예고</li> </ul>   | PPT        | 지금까지 배운 학습 목표를 요약적으로 제시한다.         |
|             | 차시 예고    | 2' (50') |  |  |            |                                    |
| <b>평가기준</b>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최척전&gt;을 통해 문학 속 인물들의 상처에 대해 공감한다.</li> <li>▷ &lt;최척전&gt;과 다른 매체와의 공통점을 통해 문학이 주는 치유의 기능을 안다.</li> <li>▷ 문학이 가지는 치유의 기능을 바탕으로 문학의 생산자가 되어 타인과 공감하는 능력을 기른다.</li> </ul>  |  |            |                                    |



문학이 주는 치유의 기능이 다른 매체에서는 어떻게 발휘되고 있는지 찾아보고 이야기해보자.



---

---

---

---

---

---



<보기> 키워드에 맞는 시를 짓고 그 이유를 말해보자.

< 기 \_\_\_\_\_ >  
>  
<불명확한 미래>  
<성적 고민>



A large empty rectangular box for writing a poem and explaining the reasons.

## ◆ 모범 답안

### 1. 학습활동①

#### 1) 최척

- 먼저 최척은 자신의 고향인 ①남원에서 왜적이 쳐들어올 때, 의병활동을 했어요. 하지만 옥영의 자살사건이 있은 후, 최척은 몸의 상태가 매우 안 좋아져,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요. 그리고는 옥영과 결혼하여 아들까지 낳죠. 하지만 왜적이 옥영과 최척이 사는 곳이 쳐들어오게 되요. 이로 인해, 최척의 가족들을 흩어지게 했어요.

- 결국 최척은 자신의 가족들을 찾지 못한 채, 명나라 장수인 여유문과 함께 절강 ②요흥부로 들어가요.

- 그리고 거기서 머물다가 여유문이 죽은 뒤, 의탁할 곳이 없어 여러 곳을 떠돌다가 송우라는 자를 만나 ③항주로 들어가게 되어요. 항주에서 ④안남과 왕래를 하던 도중 그 항구에서 아내를 만나요.

- 아내와 재회하여 잘 살고 있었는데, 누르하치가 요양을 쳐들어왔어요. 최척은 이때에도 서기로 뽑혀 ⑤요양으로 출정하게 되죠. 그 전쟁에서 패배하여 포로가 되지만 자신의 아들인 몽석을 만나고, 주변의 도움으로 고국으로 탈출에 성공하게 되어요.

- 결국 다시 자기의 집인 ⑥남원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렇게 엄청나게 타 지역에서 고생을 하고 온 최척을 보고 ‘구사일생’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전란에 의해 갖가지 고생을 겪으며 죽을 위기를 겨우 모면한 처지와 닮아있는 것 같아요.

#### 2) 옥영

- 옥영의 경우에는 전쟁이 일어나자 왜병에게 붙잡혀 ①왜국으로 끌려가요. 그 왜인의 눈에 들어 함께 살면서 장사를 하러 다녀요.

- 그러다가 ②안남에서 자신의 남편인 최척을 만나요. 최척의 행로에서 볼 수 있듯이,

- 최척이 전쟁에 나가자 그의 둘째 아들인 몽선 그리고 며느리인 흥도와 함께 남겨져요. 그리고는 조국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죠. 하지만 그렇게 순탄치는 않아요. 가던 도중에 해적들을 만나 배를 빼앗기고 무인도에 표류를 하게 되거든요. 다행이도 무역선의 배를 타고 순천으로 들어온 다음, 다시 ③남원으로 돌아가게 되죠.

저는 단어는 아니지만 속담으로 얘기해볼게요. 옥영의 모습을 보고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라는 속담이 떠올랐어요. 배를 빼앗겨 무인도에 표류하게 된 도중에도, 정신을 차려서 결국에는 고국으로 돌아온 모습이 일치하는 것 같아요.

### 2. 학습활동②

#### 1) <안녕하세요>

- TV 프로그램 ‘안녕하세요’도 치유의 기능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은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소소한 이야기부터 말 못할 고민까지 들어준다.’라는 기획의도에 맞게, 프로그램의 MC들이 게시판을 통해서 시청자들의 고민거리를 받고 그 고민거리에 대해 서로 의논하고 더 나아가서는 해결까지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자주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는데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층의 사람들이 나와서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 일부나마 위안 또는 해결책을 얻어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저번에는 제가 생각하는 고민과 비슷한 유형의 고민을 가진 친구가 나와서 그 고민을 말하고 위안을 얻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러한 고민거리가 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이외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또 저런 식으로 풀면 되구나.’ 하면서 저 스스로 또한 위안을 받았어요.

#### 2) <내 ID는 강남미인>

- 지금 연재되는 웹툰 ‘내 ID는 강남미인’ 또한 읽으면서 치유를 받았어요. 이 웹툰은 외모로 놀림을 받는 한 사람

이 성형수술을 해서 대학교에 가지만, 모두다 자신을 성형인이라고 멸시를 받게 되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자신의 외모의 모습이 아닌 내적인 부분을 좋아해주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아요. 이 웹툰을 읽으면서 ‘사람이 외모로 모든 것을 평가 받는 것이 아니구나.’, ‘꼭 성형을 해서 좋은 시선만을 받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고민을 많이 했지만, 이 웹툰이 결국 외적인 모습보다는 내적인 아름다움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저에게 깨닫게 해 주었어요.

### 3) <수난이대>

- 저는 지난 수업 때, 읽은 하근찬 작가의 <수난이대>도 치유의 기능을 한다고 생각해요. 수난이대의 주인공 박만도는 징용에 끌려갔다가 한쪽 팔을 잃는데, 자신의 아들인 진수도 전쟁에서 다리를 잃어요. 특히 집에 돌아오는 길에 외나무다리를 건널 때, 한쪽 다리를 잃은 아들을 위해 아들을 업고 외나무다리를 건너는 모습이 저에게는 잔하게 다가왔어요. 마치 전쟁이라는 마음 속 상처를 가족의 이름으로 이겨내어 앞으로 한 발짝 나아가 새로운 희망에 전진하려는 모습인 것 같아 보였어요.

## 3. 학습활동③

### 1) 불명확한 미래

|                  |                         |
|------------------|-------------------------|
| 나는 오늘 뭐했지<br>물음표 | 10년뒤엔 뭐하지<br>물음표        |
| 나는 내일 뭐하지<br>물음표 | 그만하고 싶다 물음표<br>찍고 싶다 쉽표 |
| 다음주엔 뭐하지<br>물음표  | <쉽표가 되고 싶은 물음표>         |

▶이렇게 시를 지은 이유 : 고3이라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공부를 하고 있다. 하지만 좋은 대학이란 무엇일까? 나는 아직 어떤 과를 가고 싶은지 정하지도 못한 채 공부만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불안한 모습을 ‘물음표’로 표현했고, 불명확한 미래보다는 명확한 미래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지막 행에 ‘찍고 싶다 쉽표’라고 표현했다.

### 2) 성적 고민

|  |                                      |
|--|--------------------------------------|
| 엄마는 1만 좋아한다.<br>친구들은 1만 바라본다<br>선생님은 1만 기억한다 | 모두에게 기억된 1<br>잊혀지고 숨어버린 2<br>그 사이엔.. |
| 어느샌가 2는 잊혀지고<br>패배자로 기억 된다<br>2는 숨어버린다       | <1과 2>                               |

▶이렇게 시를 지은 이유 : 모두들 1등만 기억해주는 세상에 1등은 1명밖에 될 수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많이 힘들었다. 1과 2, 과연 그 둘 사이에는 어떤 것이 있길래 이렇게 차별을 할까. 모두들 줄 세우기에 바쁜 오늘날, 물론 1등도 노력했겠지만 그 밑의 2, 3등도 모두 노력했다는 것

을 알았으면 좋겠다.

|                              |   |
|------------------------------|---|
| 여러분 다 같이 나무를 심어 봐요           | 선생님 언제 열매가 열리나요?<br>물을 주었나요?  |
| 선생님 언제 열매가 열리나요?<br>땅을 팠나요?  | 선생님 언제 열매가 열리나요?<br>삼을 쥐고 기꺼이 땀을 흘려야 나무가 자<br>라고,<br>그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답니다. |
| 선생님 언제 열매가 열리나요?<br>씨를 심었나요? | <식목일>   |

- ▶이렇게 시를 지은 이유 : 결과만을 중시하는 학생들에게 공부의 과정을 나무를 심고 난 뒤 열매를 맺는 과정으로 비유함으로써 노력을 한다고 결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보았다. 열심히 노력한다면 언젠간 좋은 결과가 따를 것임을 나타내고 싶었다.

## ★ 학생 논문발표

발표자 : 구지은·박나성·백자은

# 10대 청소년의 신조어 사용 실태와 신조어 교육방안

구지은, 박나성, 백자은(국어교육과 3학년)

### <목차>

#### 1. 서론

- 1.1 연구목적
- 1.2 연구방법

#### 2. 본론

- 2.1 신조어의 개념
  - 2.1.1 신조어의 정의
  - 2.1.2 신조어의 특징과 범위
  - 2.1.3 신조어의 유형
- 2.2 10대들의 신조어 이해
  - 2.2.1 설문조사 분석
  - 2.2.2 10대들의 설문조사 분석
  - 2.2.3 10대들의 신조어 사용 실태와 그에 대한 인식
- 2.3 학교교육에서의 신조어
  - 2.3.1 현행 교육과정에서의 신조어
  - 2.3.2 신조어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 2.3.3 신조어 교육의 교수학습 방안

#### 3. 결론

#### ◆ 참고문헌

# I. 서론

## 1.1 연구 목적

인터넷, SNS나 신문은 물론이고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어휘를 보면, 이전에 쓰이지 않던 단어들에 많이 늘어났음을 느낄 수 있다. 이와 같은 어휘 양상의 변화는 국어사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보편적인 현상이다. 어휘 양상의 변화에 있어 주목할 만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신조어이다. 왜냐하면 신조어는 새로운 사물이나 제도 등이 나타날 경우 혹은 한자어나 외래어에 대한 순화어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언어로<sup>1)</sup>, 당대의 어휘 양상을 잘 보여주는 자료이기 때문이다. 한 번 쓰이기 시작한 신조어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지기도 하며 언중들 사이에서 널리 쓰이게 됨에 따라 사전에 등재되기도 한다. 또한 영향력이 큰 신조어의 경우에는 기존 단어의 사어화(死語化)까지 가져오기도 한다. 이처럼 신조어는 언어 사용 양상이 생활 혹은 사회 변화와 크게 연관되어 나타나는 언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신조어의 파급에 있어서는 인터넷이나 SNS, 스마트폰과 같은 통신매체의 발달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신매체 외의 요인으로 만들어져 통신매체를 통해 파급된 신조어가 있는가 하면, 네티즌들이 특정 인터넷 커뮤니티 내에서 신조어를 만들어 사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형성 및 파급된 신조어들은 일상 언어생활의 영역에까지 널리 퍼지게 되어 현재 우리의 언어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신조어는 특히 10대들의 언어생활에서 많이 쓰인다. 신조어가 언어생활 혹은 사회 변화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언어라는 점과 10대들이 미래의 언어생활을 이끌어 나갈 주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신조어에 대한 연구와 그에 대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10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신조어의 양상 및 그에 대한 인식, 신조어 교육의 실태 등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또한 2015, 2012, 2009, 2007년도 국어과 교육과정을 살펴보고 현재 신조어 교육의 문제점과 신조어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10대들의 바람직한 언어생활에 중점을 둔 것으로, 신조어 실태 분석에서 나아가 신조어 교육의 실제적인 방향까지 논의하게 될 것이다.

## 1.2 연구 방법

본 연구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존 연구들을 살펴봄으로써 신조어에 대한 기초 지식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특히 신조어의 유형을 구분할 때는 국립국어원의 자료를 기본으로 하여 다른 논의들의 관점을 참고하였다. 학교의 신조어 교육이 지향하고 있는 바를 파악하기 위해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분석하였으며, 실제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신조어 교육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에 있어서는 설문조사의 결과를 기본으로 삼았다.

10대들의 신조어를 조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설문지법을 선택했다. 인터넷을 활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다면, 수적으로 많은 표본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간적으로도 경제적이란 장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 환경 자체가 지니는 익명성으로 인해 10대들만을 표본으로 걸러내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SNS를 통해서 본 설

1) 외 7인, 학교 문법과 문법 교육, 도서출판 박이정, 2015, p.228

문조사를 위한 기초조사만을 시행하기로 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중·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우선 SNS 상에서 진행했던 설문조사의 경우 전체 문항 수가 11개였으며, 10대를 포함한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설문조사에 응해주었다.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128명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신조어의 양상과 그에 대한 인식에 대해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설문지를 수정하여 포항고등학교(포항), 화봉고등학교(울산), 근화여자고등학교(경주), 진장중학교(울산) 총 4개교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설문조사의 표본 수는 586명이었으며, 본 연구는 이 설문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진행되었다.

이처럼 본 연구는 기존의 논의를 살핌과 동시에 설문조사를 진행함으로써 객관성과 현장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 II. 본론

### 2.1 신조어의 개념

#### 2.1.1 신조어의 정의

신조어(新造語) 혹은 신어(新語)는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새로 만든 단어’ 혹은 ‘새로운 단어’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신조어의 구체적 양상을 온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이에 필자는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기존의 인터넷 자료와 논저를 바탕으로 신조어의 개념을 재정립하고자 한다.

아래의 표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각종 사전 및 논저들의 몇몇 견해를 정리한 것이다.

|              |   |
|--------------|---|
| 표준국어대사전      | 새로 생긴 말. 또는 새로 귀화한 외래어.   |
| 다음 국어사전      | 새로 만든 낱말  |
| 네이버 인터넷 용어사전 | 새로운 단어나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내는 것, 특히 하이테크 분야에서는 신조어가 많이 나온다.  |
| 국어교육학사전      | 새로 생겨나서 그다지 시일이 경과하지 않은 새말  |
| 국어학 언어학용어사전  | 외래어까지 포함하여 새로 나오는 말을 통칭하는 뜻   |
| 언어학사전        | 신조어에는 새로운 단어, 또는 존재하고 있던 단어지만 어떤 새로운 의미를 부여 받을 경우 그 외에도 외국어 또는 전문 분야, 특수한 사회집단의 용어로부터의 차용어 그리고 과거에 사용되었다가 소멸된 뒤 다시 새로 쓰이기 시작한 단어 등이 포함된다. |
| 김광해          | 언어 사회의 물질적 사회적 변동에 따라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였을 때 이를 표현해야 할 필요성에 의하여 만들어진 어휘  |
| 문금현          | 기존 언어와 유연성 없이 새롭게 창조된 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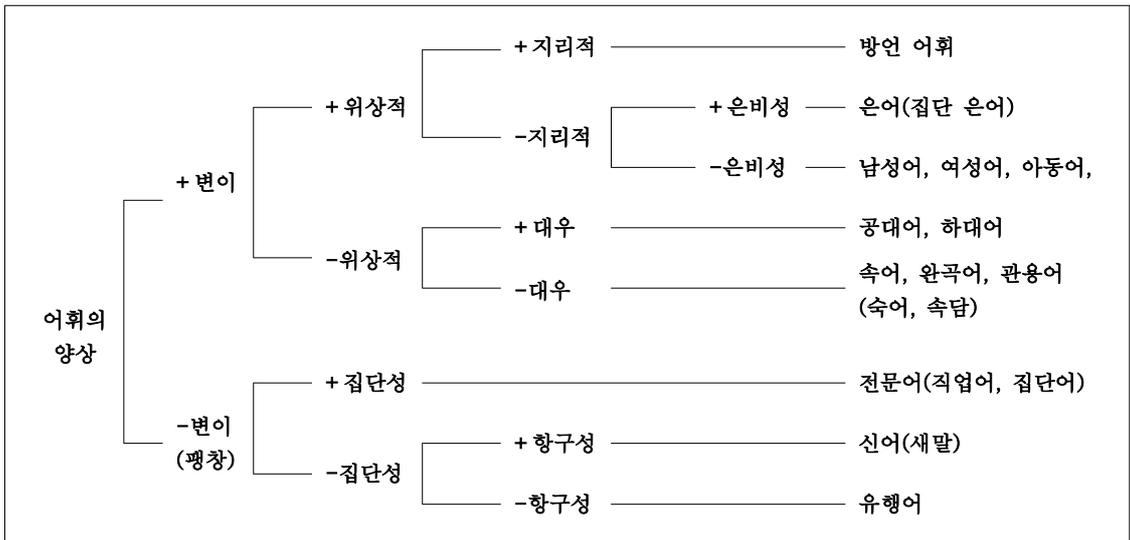
|           |  |
|-----------|--|
| 백영석       | 기존의 의미에 새로운 의미가 추가된 단어   |
| 7차 국어 교과서 |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사물이나 개념이 등장하게 되면 이를 표현하기 위한 새로운 말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하여 언어사회에 새로이 등장하는 어휘를 새말이라고 한다. |

▲ 표 1<sup>2)</sup>

위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신조어의 개념은 일관되게 정립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신조어가 생겨나는 양상이 매우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어 일반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단순히 새로 등장한 말 기존에 있었으나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된 말이 신조어를 이루는 두 개의 큰 축이라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신조어의 개념을 ‘새로 만들어진 말 혹은 기존에 있었으나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쓰이게 된 말’로 정의하였다.

### 2.1.2 신조어의 특징과 범위

필자는 어휘의 양상 분류표를 바탕으로 이론적 측면에서 신조어의 특징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학교 문법에서 사용되는 어휘의 양상 분류를 보면, 크게 어휘적인 팽창을 경험하는 어휘 집합과 변이형으로서의 어휘 집합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다시 집단성을 지닌 어휘 집합과 지니지 않은 어휘 집합으로 나뉘게 되며, 후자는 그 변이형이 위상적인지 위상적이지 않은 지에 따라 나뉜다. 위상성을 가진 변이형의 경우 지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나눌 수 있으며, 위상성이 없는 변이형의 경우 대우 기능을 가지는 어휘와 가지지 않는 어휘로 나뉜다. 또한 어휘적 팽창을 경험하면서 집단성을 지니지 않는 어휘 집합은 항구성을 가지는 어휘와 가지지 않는 어휘로 나뉜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표 2<sup>3)</sup>

2) , 신조어의 형성 양상과 교수 학습 방안 연구, 단국대학교, 2008, p. 5

위의 분류표에서 신조어가 차지하는 위치를 고려해보면, 신조어의 특징은 ‘-변이, -집단성, +항구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 특징들이 지니는 의미를 하나하나 풀이하여 신조어의 특징을 알아보기로 하자. 첫 번째로 ‘-변이’는 신조어가 기존의 어휘와 비교하여 그 모습이나 기능을 달리하는 변이형을 가지지 않으며, 어휘의 증가가 발생하는 어휘임을 의미한다. 두 번째, ‘-집단성’은 신조어가 전문어와 달리 한 집단의 성질을 드러내거나 그 집단 내에서만 사용되는 어휘가 아님을 뜻한다. 세 번째, ‘+항구성’은 신조어가 유행어와 달리 변하지 않고 오래가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특징을 전제로 한다면, 이론적으로 신조어는 전문어나 유행어 등과 명확히 구분되는 특성을 지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 용례를 살펴보면, 전문어나 유행어 등은 신조어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임의적으로 신조어의 범위를 규정해보았다. 이는 ‘홍지영」 「신조어의 형성 양상과 교수 학습 방안 연구」에서 사용한 범위를 토대로 했으며 학교 교육에서의 문법을 다루는 만큼 그보다 더 폭넓게 신조어의 범위를 보도록 할 것이다. 먼저 전문어의 측면을 살펴보자. 최근 사회가 전문화됨에 따라 다양한 전문어가 등장하고 있으며, 정보에의 접근이 용이해짐에 따라 전문어를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sup>4)</sup> ‘광대 필러’<sup>5)</sup>, ‘교육 절벽’<sup>6)</sup> 등이 그러한 예에 속하며, 이러한 단어들은 언론 매체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새로 만들어진 전문어 중 접근이 쉽고 대중에게 반복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은 신조어로 다루기로 한다.

유행어의 경우에도 신조어와 명확히 구분 짓는 것에 한계가 있다. 유행어처럼 쓰이던 것이 항구성과 대중성을 띠게 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sup>7)</sup> ‘강력크하다’<sup>8)</sup>의 경우가 바로 그 예이다. 따라서 짧은 기간 동안 사라지지 않고 한 매체의 영향이 사라져도 많은 대중에게 사용되어 없어질 가능성이 낮은 유행어의 경우 역시 신조어로 포괄하기로 한다.

은어의 경우에는 은비성을 잃게 되어 대중에게 반복적으로 사용되면 신조어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돼지맘’<sup>9)</sup>과 같은 어휘가 이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부류 또한 신조어로 다룰 필요가 있다.

이처럼 본고에서는 이론적인 어휘 분류 체계에서 층위가 다른 어휘라 하더라도, 실제적인 사용 맥락을 고려했을 때 그 말이 신조어의 정의에 부합한다면 그 어휘를 신조어의 범위에 포함하고자 하였다. 필자가 이러한 관점을 택한 이유는 본 연구가 학교에서의 신조어 교육을 염두에 두고 진행된 것이라는 사실과 관련 있다. 학교교육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 중 하나인 실제 생활과의 괴리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의 방향은 학생들의 생활과 관련지을 수 있는 쪽으로 옮겨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신조어 교육 역시 이론적 측면보다

3) 국어교육 연구소, *고등학교 문법 교사용 지도서*, 교육인적자원부, 2007, p.153

4) 홍지영, 「신조어의 형성 양상과 교수 학습 방안 연구」, 단국대학교, 2008, p. 13

5) 필러 시술로는 주로 이마 필러, 눈밑 필러, 광대 필러, 팔자주름 필러, 코 필러 등 윤관 필러 주사 시술이 주를 이루고 있다.(내일신문 2013년 10월.)

6) 저자는 엄마는 엄청난 학비가 필요한 한국 교육을 ‘교육절벽’이라고 비판하고, ‘경력 단절 여성’이 일자리를 다시 구하기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는 ‘일자리 절벽’이라고 지적한다. (연합뉴스 2013년 9월.)

7) 홍지영, 위의 논문, p.14

8) 나머지 3명은 잘 크면 강력크한테 잘 커서 약한 챔프가 어딴음(디스이즈게임 2014년 2월)

9) 돼지 엄마 일명 ‘돼지맘’은 자녀를 명문대에 보내기 위해 자녀 교육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엄마들의 대표를 뜻하는 은어다(뉴스엔 2014년 3월)

는 실제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어야 한다. 즉 이론적인 분류에 따라 은어, 유행어, 신조어를 명확히 구분 짓는 것보다는 실제적 맥락을 고려한 융통성 있는 관점이 필요한 것이다.

### 2.1.3 신조어의 유형

신조어는 매우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기에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하여 유형화시켜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신조어에 대한 기존 연구들이 조어 방식과 어종을 신조어 분류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수용하였으며, 비교적 객관적이라고 판단되는 국립국어원의 연구 또한 참고하였다.<sup>10)</sup>

우선 조어 방식을 기준으로 하면, 신조어는 크게 단일어와 복합어로 나눌 수 있다. 단일어의 경우에는 다시 ‘생성, 차용’으로 세분화되며, 합성어는 ‘합성, 혼성, 축약’으로, 파생어는 ‘접두 파생, 접미 파생’으로 나누어진다. SNS 통해 실행한 기초조사의 결과로 나온 신조어를 이 기준에 따라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은 표로 나타낼 수 있다.

| 분류  |     | 예           |                    |
|-----|-----|-------------|--------------------|
| 단일어 | 생성  | 광삭, 두둑치, 웬열 |                    |
|     | 차용  | 김치, 사이다     |                    |
| 복합어 | 합성어 | 합성          | 금수저, 흙수저, 걸크러쉬     |
|     |     | 혼성          | 네티켓, 휴게텔, 먹부심      |
|     |     | 축약          | 여적여, 넘나, 누물보, 길끼빠빠 |
|     | 파생어 | 접두 파생       | 개이득, 개좋아           |
|     |     | 접미 파생       | 얼짱, 몸짱, 급식충        |

▲ 표 3

단일어에서 생성의 관점은 완전히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낸 것을 뜻하며, 차용의 관점은 기존에 있는 단어를 다른 뜻으로 재구성한 것을 의미한다. 합성어에서 합성의 관점은 단어와 단어가 결합한 것을 뜻하고 혼성의 관점은 단어의 일부를 가지고 와서 결합한 것이다. 또한 축약은 한 단어, 구 혹은 문장을 짧게 줄인 것이다. 파생어는 접사와 어근이 결합한 것인데, 접사가 어근의 앞에 붙은 접두 파생법과 접사가 어근의 뒤에 붙은 접미 파생법으로 나뉜다.

어종을 기준으로 할 경우 고유어, 외래어, 한자어에 혼종어를 더해 어종이 섞여서 나타나는 경우까지를 분류해볼 수 있다. 또한 국립국어원의 방식을 따르되, 어원이 하나인 단일어와 어원이 둘 이상인 복합어 등의 용어를 표기를 하지 않고 고유어, 외래어, 한자어,

10) , 「2014년 신어 조사 보고서」, 국립국어원, 2014, p.24-p.29

혼종어로 표시하였다. 다만 ‘얼짱, 몸짱’과 같이 원어가 어디서 출현했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위의 단어들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 분류      |          | 예                                     |
|---------|----------|---------------------------------------|
| 고유어     |          | 두둑꿇<br>웬열, 낄끼빠빠, 넘나, 누물보,<br>흙수저, 개중아 |
| 외래어/외국어 |          | 사이다<br>걸크러쉬, 네티켓                      |
| 한자어     |          | 광삭, 여적여<br>급식층                        |
| 혼종어     | 고유어+ 한자어 | 개이득, 떡부심                              |
|         | 한자어+ 고유어 | 금수저,                                  |
|         | 한자어+ 외래어 | 휴게텔                                   |

▲ 표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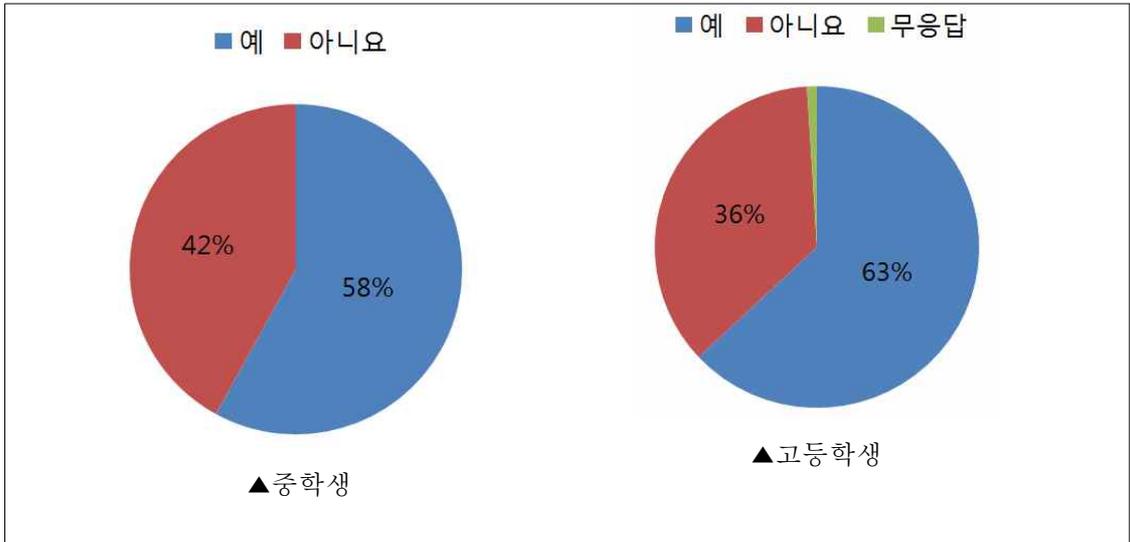
고유어는 그 원어가 고유어에서 온 것으로, 의성어나 의태어, 고유어를 축약한 단어, 고유어끼리의 합성어까지를 포괄한다. 외래어는 외국어에서 그 원어가 온 것과 외국어끼리의 결합을, 한자어의 경우에는 한자어 단어의 축약과 한자어끼리의 결합을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혼종어의 경우에는 예시를 삼은 단어를 기준으로 고유어와 한자어가 결합한 경우, 한자어와 고유어가 결합한 경우, 한자어와 외래어가 결합한 경우로 구분하였다.

## 2.2. 10대들의 신조어 이해

### 2.2.1 설문조사 분석

이 장에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10대들의 신조어 사용 실태 및 인식을 분석해 보려 한다. 포항고등학교는 2016년 7월 17일, 진장중학교는 2016년 7월 17일, 화봉고등학교는 2016년 7월 19일, 근화여자고등학교는 8월 9일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설문지는 10대들의 신조어 사용 실태 및 인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제작된 것으로, 총 4 개교 중 중학생 140명과 고등학생 446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 1.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신조어가 있습니까?



▲ 표 5

이 문항은 10대 청소년들의 신조어 사용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제작된 것이다. 이 문항에 ‘예’라고 답한 청소년은 중·고등학생 모두에서 과반수를 차지했다. 이로 보아 상당히 많은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신조어를 즐겨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가장 자주 쓰는 신조어 3가지를 써주십시오.
3. 2에서 답변한 신조어들의 뜻과 그 신조어가 사용된 예를 적어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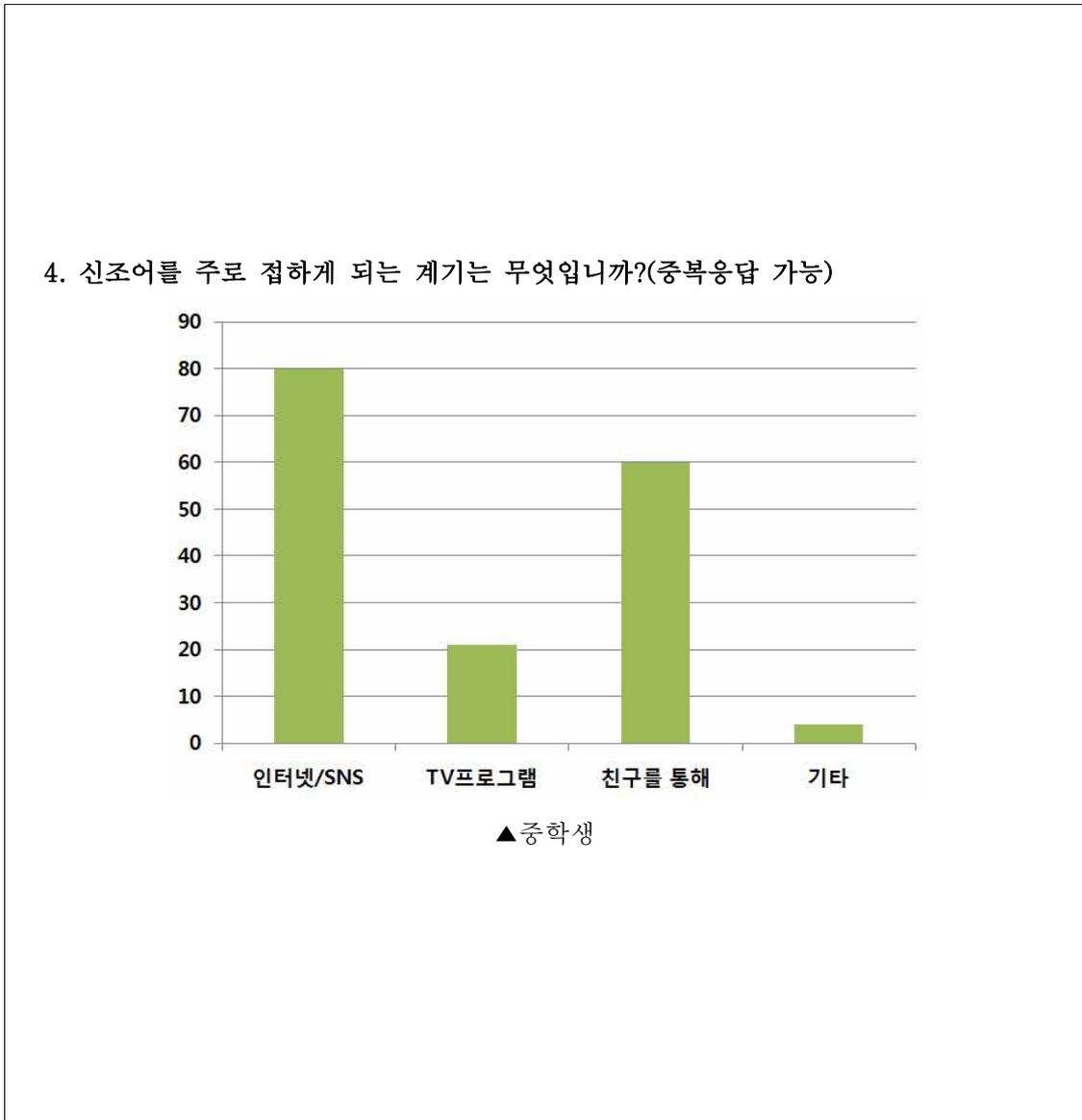
2·3번 문항은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신조어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만들어졌다. 청소년들이 자주 쓴다고 제시한 여러 가지 신조어들 중 10회 이상 언급된 단어를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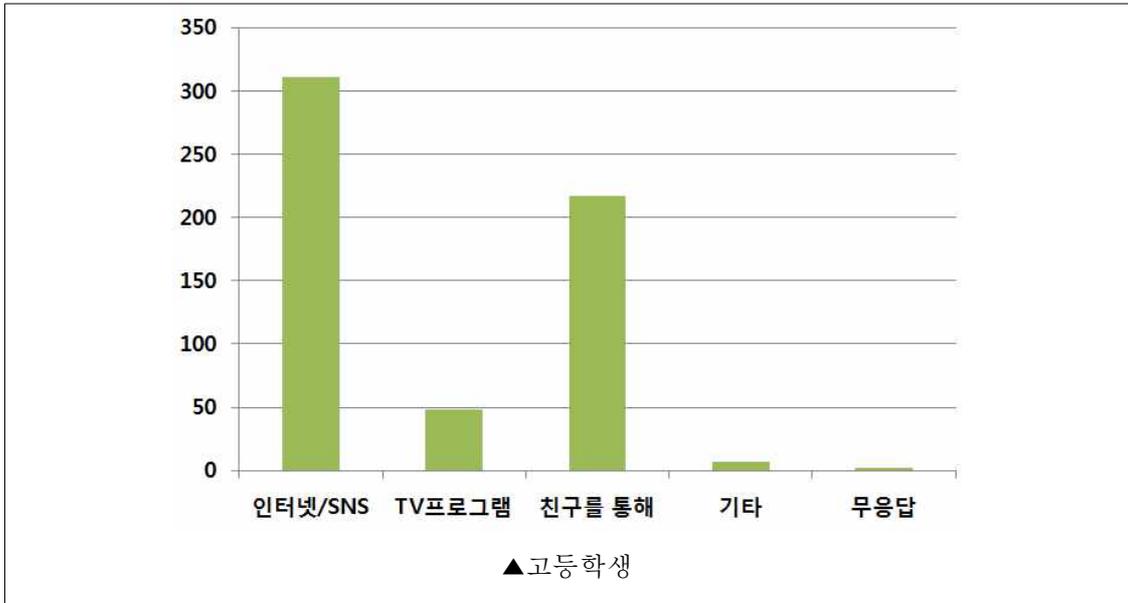
| 신조어 | 개수 | 신조어    | 개수 | 신조어    | 개수 |
|-----|----|--------|----|--------|----|
| 노답  | 78 | 앙 기모띠  | 29 | 각      | 19 |
| 인정  | 55 | 넘나     | 28 | 찐다     | 19 |
| 개이득 | 44 | 응, 아니야 | 24 | 1도 모른다 | 16 |
| 노잼  | 42 | 김치녀    | 23 | 안물안궁어쩔 | 16 |
| 극형  | 41 | 눈새     | 23 | 오지다    | 15 |

|      |    |    |    |      |    |
|------|----|----|----|------|----|
| 이거레알 | 38 | 개- | 22 | 반박불가 | 14 |
| 꿀잼   | 31 | -총 | 20 | -치자  | 10 |

▲ 표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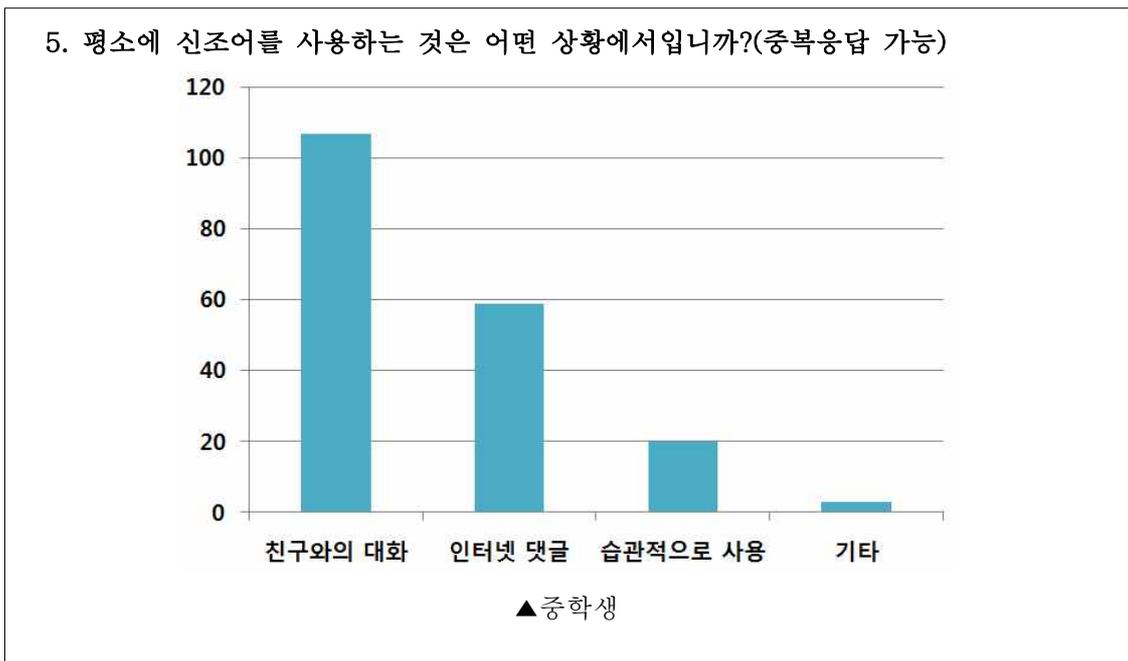
위의 표에 제시된 21개의 신조어 중 상대를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부정적인 용어는 ‘노답, 노잼, 눈새, 극혐, 응, 아니야, 김치녀, -총, 안물안궁어쩔’의 총 8개로 나타났다. 이는 자주 사용하는 신조어의 약 1/3 이상을 차지하는 비중으로, 10대들이 부정적인 의미의 신조어를 즐겨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신조어들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2.2.2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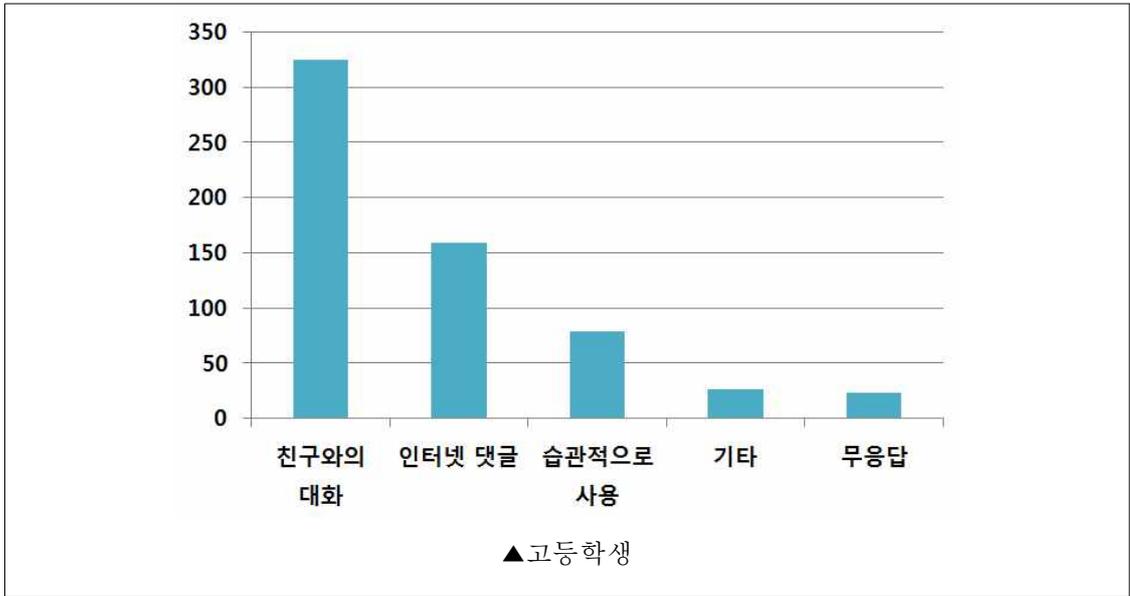




▲ 표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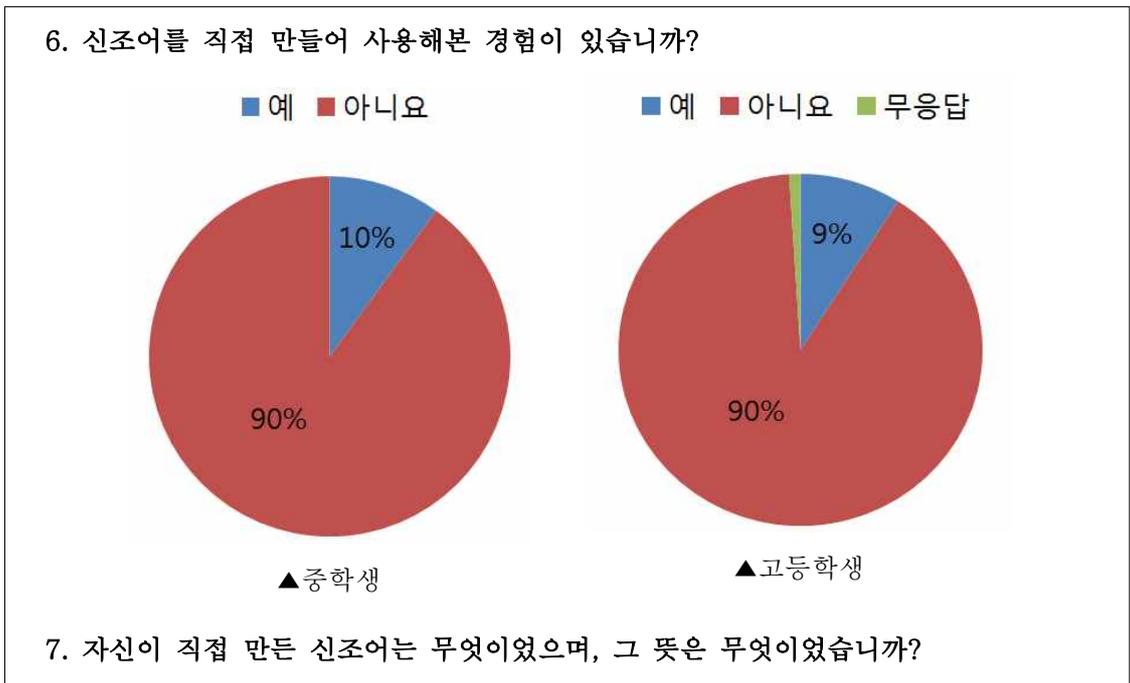
4번 문항은 10대들이 신조어를 접하게 된 경로를 알아보기 위해 제작된 것이다. 그 결과 ‘인터넷이나 SNS에서 접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친구를 통해 접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이로 보아 통신매체의 발달과 또래 집단이 청소년의 신조어 사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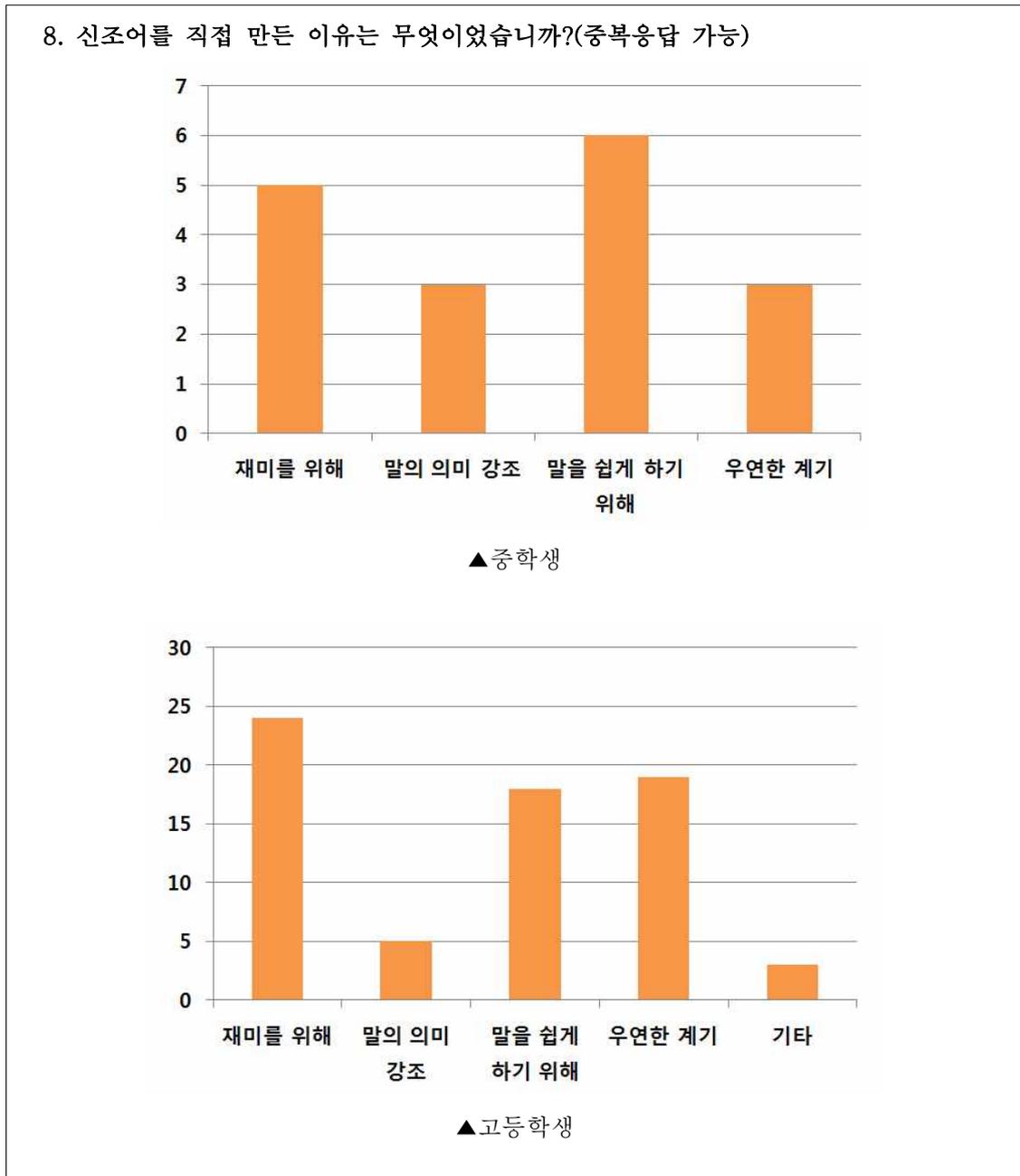
▲ 표 8

5번 문항은 10대들이 신조어를 사용하는 상황맥락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 결과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 것은 ‘친구와 대화할 때 사용한다.’는 응답이었다. 4번 문항에서 ‘친구를 통해 신조어를 접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두 번째 순위를 차지했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또래요인은 10대들의 신조어 사용여부 및 양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그 뒤를 이은 것이 ‘인터넷 댓글’인데, 이 역시 4번 문항의 결과와 관련 지어보았을 때 더욱 유의미해진다.



▲ 표 9

6·7번 문항은 10대들이 신조어를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지의 여부와 그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제작되었다. 그 결과 신조어를 직접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 학생은 10% 이하에 불과했다. 이를 1번 문항의 결과와 관련지어 살펴보았을 때, 대부분의 10대들이 신조어를 사용하는 것은 하나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는 일부 학생들에 국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현재 10대들의 조어능력이 미비함을 알 수 있었다.



▲ 표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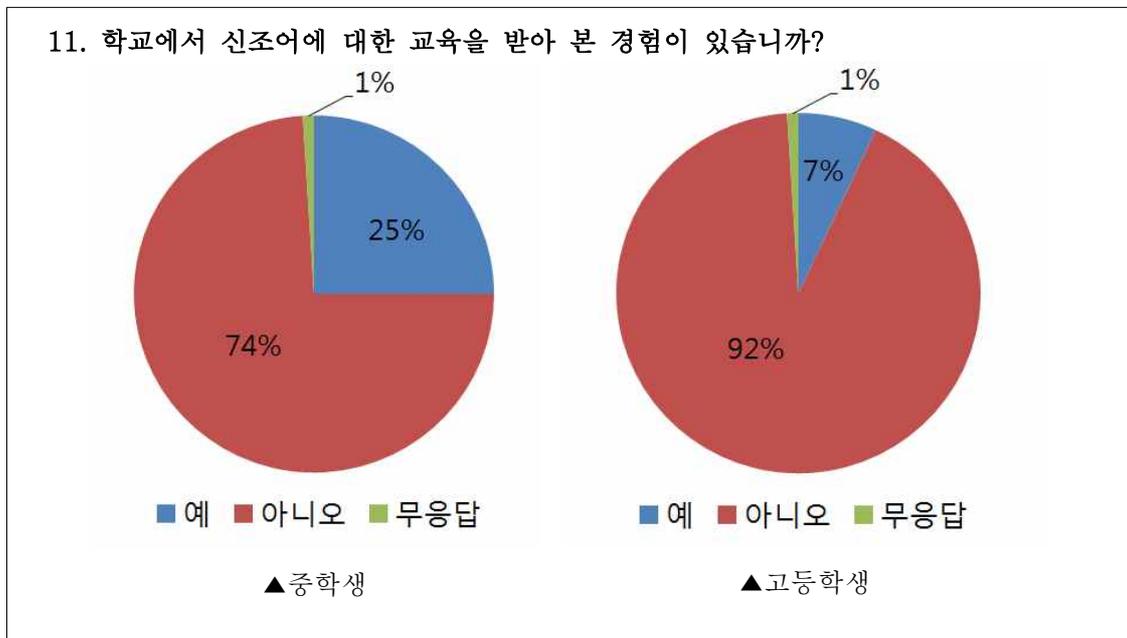
8번 문항은 10대 청소년들이 신조어를 직접 만들어 사용하게 된 동기를 알아보기 위해



경우 역시 신조어의 양면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라는 응답이 24%,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이 21%로 그 뒤를 이었다.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응답한 경우, 가장 많은 이유로 언급된 것은 ‘의사소통의 불편함(50명)’과 ‘언어의 파괴(38명)’였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응답한 비중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응답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는데, 그 이유로 언급된 것은 ‘재미있어서(33명)’, ‘편리해서(15명)’ 등이 있었다. 이로 보아 이러한 부분들이 고등학생들이 느끼는 신조어의 장단점인 듯하다.

이 문항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신조어의 장점 혹은 단점만을 편향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단점을 모두 인식하고 있는 청소년도 일부 있었으나, 그들이 신조어의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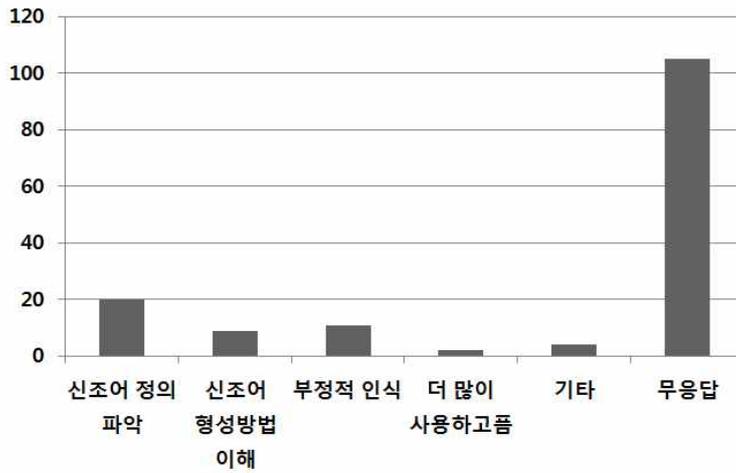
아래의 세 문항은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신조어 교육의 실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 표 12

11번 문항은 학교에서의 신조어 교육 실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제작한 문항 중 하나로, 신조어 교육을 받은 경험 유무를 조사하고자 한 것이다. 그 결과 표본 중 25%의 중학생과 7%의 고등학생만이 신조어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즉 신조어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거나 교육 받은 것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무의미한 신조어 교육만을 받은 학생이 대부분인 것이다.

12. 학교에서 받은 신조어 교육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까?



▲ 중학생



▲ 고등학생

13. 12에서 그렇게 답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표 13

12·13번 문항 역시 학교현장에서의 신조어 교육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이를 통해 신조어 교육이 10대 청소년들에게 끼친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앞서 살펴본 듯이 ‘신조어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중·고등학생의 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이 문항에 응답한 학생의 수 역시 매우 적다. 부족하나마 이 문항에 응답한 학생들을 표본으로 하였을 때,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인 것은 ‘신조어의 정의를 파악하게 되었다’는 응답이었다. ‘12번 문항에서 그렇게 답변한 이유는 무엇인가’를 묻는 13번 문항에서 가장 많이 나온 응답 역시 ‘신조어의 정의 정도만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였다. 11·12·13번 문항을 종합해보았을 때

현 학교교육에서는 신조어를 매우 적은 비중으로 다루고 있으며, 다루더라도 이론적인 일부 측면만을 제한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2.2 10대들의 신조어 분석

이 장에서는 10대들이 사용하고 있는 신조어가 어떻게 형성된 것인지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아래의 보기는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를 모두 나열한 것이다.

보기 14.

1도 모른다. 6.9cm, gg, 각, 간지, 감다, 감사, 감사, 감자, 갓, 개-, 개꿀, 개빡치네, 개소리, 개이득, 개편빵, 개취준중, 거의 -급, 거의 -다, 거진, 겁나, 갓, 격공, -고, 고구마, 고급시계, 고탄내, 관중, 굿밤, 그릴, 극딜, 극뽕, 극혐, 금사빠, 금술, 금수저, 급식충, 기달, 김천, 김치남, 김치녀, 깜놀, 까특쿠스투스, 꿀잼, 꺾, 낄끼빠빠, 낄낄이, ㄴㄴ, 남사친, 낫넝겐, 냥냥편치, 너무 썩으졌고, 넌씨눈, 넘나, 네니오, 네다변, 네다홍, 노늬, 노답, 노답보스, 노이득, 노잼, 노짱, 노푼처, 눈새, 뉴비, 니애미(느금마), 답정너, 답정녀, 대박, 땡, 땡청하다, 덕계못, 덕질, 된장녀, 디나이, 디팡, 땡삼, 레알, 레알 밥도둑, 레알팩트, 툴, 톨리, 료도와가 세쿄크라이, 루트2, 리오레, 마당, 마상, 만카이, 맞병, 맴짖, 메갈녀, 메주, 명존썰, 문상, 문쩨 똥술, 똥미, 민주화, ㄸㄸㄸ, 반박불가, 백-, 백상아리, 버정, 버카츄, 보적보, 부분이다. 불터문대, 비답, 빠이, ㅼㅼ대가리, ㅼㅼ박, ㅼㅼ박불가, ㅼㅼ박캔트, ㅼㅼ띠, 사이다, 산삼, 삼일한, 상타치, 새피, 생선, 서양수박, 세젤귀, 세젤예, 셀피, 스바, 신박하다, 실자지, 실제, 심자, ㅇㅇ, 아갈(아가리) 아다뿌, 아닥, 아묵, 아싸, 아웃, 아재, 안물안궁어쩔, 안습, 암걸린다, 앙기모띠, 알루, 암바, 어이 털림, 어이x, 어줍, 에바, 엠뒤년, 엠생, 엠창, 여사친, 여적여, 열공, 오지다, 오지현따, 오키, 와 심쿵, 와꾸, 와드, 왜 때문에, 우짜까, 위키러, 으르, 응 아니야, 리거레알, 익보, 인강, 인삼, 인성, 인정, 인쓰, 일베다, 일인일베, ㅈㄴ(제곧내), 자박꿈, 자적자, 잼, 잼잼, 쟁, 저스트 벨링, 존나, 존맛, 존못, 존예, 존잘, 존잘부스, 존잼, 존중, 좇귀, 좇라, 좇갈다, 좇박았다, 죽창, 즐, 지리다, 지못미, 지송, 진지츄, 째찌, 째쉬움, 쨌빵, 쨌슈아이, 쨌킹, 쨌다, 쨌질이, 참교육, 창렬, 칠벽녀, 최애, -츄, 취준, 츄테레, 치빠갈, -치자, ㅋ, 캡송, 캡짱, 케미, 코사멘뚜, 킬링파트, 터졌다, 토자, 통통 베이스, 특전, 패드립, 평타치, 피방, 피자녀, 핑프 파타치, 하태한테, 한입츄, 할망하얌, -해버리기, -해쥬, 핵-, 헐, 헬조선, 현질, 현피, 혜자, 혼삼, 흡수저, 히트다 히트

이들 중 몇몇은 유행어, 은어, 비속어의 성질을 강하게 띠고 있는 말이며, 사투리를 신조어로 잘못 적은 예시가 있다. 예를 들어 ‘류도와가 세쿄크라이’, ‘고급시계’, ‘하태한테’ 등은 게임이나 광고에 영향을 받아서 나온 말로 해당 매체의 유행어로 인해 자주 쓰이게 되면서 유행어의 특징을 강하게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오지현따’ 등의 경우 담임선생님을 선생님 모르게 홍보는 말로 은비성을 지녔기 때문에 은어의 성질이 강하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니애미’, ‘좇박았다’, ‘아갈’ 등은 비속어와 신조어의 구분이 모호하며 ‘와꾸’ 등은 사투리를 신조어로 오인하여 잘못 쓴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논의 대상은 2.2.1에서 표로 제시한 10대들이 자주 사용하는 신조어로 하였다. 그리고 신조어의 분석과 어원 파악은 10대들이 각 신조어를 사용한다고 적어준 상황과 신조

어의 예시, 그리고 그들이 밝힌 신조어의 뜻을 기본으로 하되, 기존의 문법 이론을 참고하였다.

우선 ‘-충’은 한자 ‘蟲(벌레 충)’에서 온 말이다. 이는 상대를 벌레의 위치로 격하시키는 말로서 비하하거나 비꼬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다. 이는 ‘벌레’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는 부정적인 의미가 확장되어 한자가 비하의 뜻을 담은 접미사처럼 쓰이게 된 것이다. 주로 명사에 붙어 ‘진지충’, ‘햄버거충’ 등과 같이 사용되는데 이들의 뜻은 각각 ‘지나치게 진지한 사람’, ‘지나치게 햄버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특히 10대 들의 경우엔 ‘급식충’, ‘한입충’과 같이 자신들의 생활에 밀접한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급식충’에서 ‘급식’은 ‘급식을 먹는 사람들’ 즉 ‘학생’을 나타내는 명사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뒤에 접미사 ‘-충’이 붙음으로써 몇몇 미성숙하고 상식과 개념이 없는 학생들을 나타내는 말로 쓰이고 있다. ‘한입충’은 ‘한 입만 주라’의 줄임말인 ‘한입’ 뒤에 접미사 ‘-충’이 붙은 단어이다. 이는 자신의 돈은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이 사온 음식을 항상 한 입만 달라고 조르는 사람들을 비하하는 말이다.

‘각’은 사진을 찍거나 당구 혹은 볼링 등을 칠 때 사용되는 ‘각(角) 나왔다’라는 말에서 유래하였다. ‘각 나왔다’는 ‘적합한 상황’임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며, 이때 ‘각’은 ‘각도’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용법으로 H자동차 회사의 광고에서 ‘충돌각’이라는 말이 사용되었다. 이를 시초로 하여 ‘각’이라는 말이 명사나 용언의 활용형 등과 결합하여 ‘~하기에 적합한 상황이다’라는 의미로 쓰이게 되었다. 그 예로 ‘자살각’, ‘밥 먹을 각’ 등이 있다. ‘자살각’은 상황이 몹시 좋지 아니하여 자살을 하는 것이 나올 법한 상황임을 뜻하며, ‘밥 먹을 각’은 배가 몹시 고프므로 밥을 먹어야 좋을 상황임을 뜻한다.

‘인정(ㅇㅈ)’은 ‘확실히 그렇다고 여기다.’라는 의미를 지는 명사 ‘인정(認定)’과 거의 같은 의미로, 상대의 의견에 동의하는 뜻을 표현하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인정’이라는 단어보다 매우 가볍게 쓰인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별 의미 없이 추임새나 그냥 하는 말로 쓰이기도 한다. 초성만 따서 ‘ㅇㅈ’과 같이 사용되기도 하며, ‘당신도 저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라는 의미를 지닌 의문형으로 ‘인정?’과 같이 표현되기도 한다.

‘오지다’는 ‘마음에 흡족하게 흐뭇하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형용사 ‘오달지다’ 혹은 ‘무서운 상황’을 나타내는 관용표현 ‘오줌을 지리다’의 준말에서 의미의 확장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단어는 깜짝 놀라서 오줌을 지릴 정도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어떤 상황을 강조하는 데에 사용된다. 동일한 의미로 ‘지리다’가 있으며 이는 위의 ‘오줌을 지리다’에서 ‘지리다’만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10대들의 경우 ‘각’과 ‘인정’ ‘오지다’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예시로 ‘이것은 인정해줘야 할 사실이 아닌가? 모른 척하는 게 매우 놀랍다’라는 의미로 ‘이거 인정각인 부분? 발뺌하기 오지구여, 지리구여’라고 사용했다.

‘쩨다(쩨다)’는 ‘절다’의 잘못된 표현으로 추정했으며, 여기서 ‘절다’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절다

동사<sup>11)</sup>

i 「...에」

1. 푸성귀나 생선 따위에 소금기나 식초, 설탕 따위가 배어들다.
2. 땀이나 기름 따위의 더러운 물질이 묻거나 끼어 찌들다.
3. 사람이 술이나 독한 기운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다.

위에서 보듯이 ‘절다’는 무언가에 들어가서, 무언가의 특성이 배어 있는 것을 뜻한다. 이처럼 ‘절다(찌다)’는 상대가 어떠한 능력이나 특성이 굉장히 강하게 배어 있어서 그 모습이 마치 무언가에 절어 있는 것 같음을 강하게 나타내는 신조어라고 할 수 있다.

‘절다’는 흔히 ‘찌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강조의 의미를 지닌 접두사 ‘개-’와 결합하여 ‘개찌다’와 같이 쓰이기도 한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절다’는 동사로 쓰이지만 ‘찌다’의 경우 형용사로 쓰인다는 것이다. ‘찌다’를 형용사로 볼 수 있는 이유는 명령형, 청유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찌수는 피아노 실력이 찌다.’라는 예문을 통해서 ‘찌다’가 어떠한 동작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특정 상태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찌다’는 ‘찌어’, ‘찌네’와 같은 활용형으로 쓰임으로써 감탄사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 예로 정말 아름답다는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찌어! 진짜 예쁘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치자’는 동사 ‘치다’의 여러 가지 뜻 중 ‘불필요하게 쌓인 물건을 파내거나 옮기어 깨끗이 하다.’라는 뜻에서 온 것이다. 여기에서 의미가 확장 되어 접사 ‘-하다.’를 보다 과격하고 거칠게 쓰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원형은 ‘-치다’이지만 일반적으로 ‘-치자’라는 청유형으로 쓰인다. 사용되는 예시로는 ‘이를 닦자.’를 ‘이빨 치자.’로 표현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응, 아니야’는 급식체<sup>12)</sup>에서 유래한 말로, 상대방이 본인의 생각과는 다른 말이나 헛소리를 했다고 생각했을 때, 혹은 상대의 말을 무시할 때 사용되는 구이다. 우선은 상대방에게 동조하는 것처럼 ‘응’이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상대방에게 기대감을 불러일으킨 다음 ‘아니야.’라는 말을 함으로써 부정적인 뉘앙스를 더욱 강조한다. 사용되는 예는 다음과 같다.

A : 야, 연예인 C 정말 멋있지 않니?

B : 응, 아니야.

‘개이득(ㄱㅇㄷ)은 강조의 의미를 지닌 접두사 ‘개-’와 어떠한 것을 얻는다는 뜻을 지닌 명사 ‘이득’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말로, ‘아주 큰 이득을 보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흔히 단어의 초성만을 따 ‘ㄱㅇㄷ’과 같이 사용한다. 설문조사를 실시한 10대들은 이 신조어의 대표적인 예시로 ‘오늘 급식 맛있는 거다. 개이득’이란 예시를 적어주었으며 이를 통해 ‘개이득’이라는 신조어의 의미를 알 수 있다.

‘김치녀’는 명사인 ‘김치’와 한자어 접미사 ‘-녀(女)’가 결합한 말이다. 이 경우에 ‘김치’는

11) [<http://stdweb2.korean.go.kr/search/View.jsp/> ], 2016. 8. 23

12) 급식을 먹는 초중고생이 사용하는 문체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으로, 어떤 단어의 초성만 따 형태나 줄임 말, 은어, 비속어 등이 많다는 특징을 지닌다.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한국인의 대명사로 쓰였다. 이렇게 보면, ‘김치녀’<sup>13)</sup>는 단순히 ‘한국여성’을 뜻하는 말로 보일 수 있지만 10대들이 표현한 이 신조어의 의미와 인터넷 기사의 의미로 보아 내포된 의미를 따진다면 ‘남자에게 빌붙으려고 하며 자신의 돈은 아끼는 여성’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말이 처음 생긴 때는 각종 로맨틱 드라마 및 영화의 영향으로 인해 한국에서 데이트를 할 때에는 남성이 돈을 내는 것이 당연시 되어 있던 시기이다. 반대되는 말로 ‘스시녀’가 있는데 일본을 대표하는 음식인 ‘스시’에 여성을 뜻하는 ‘-녀’를 붙인 말이다. ‘스시녀’는 한국 남성들이 더치페이가 일상화 되어 있는 일본여성들을 몇몇 한국여성들과 비교하며, 한국 여성들을 비하하는 데에 주로 쓰는 말이다. 더불어, ‘상식이 없고 이기적인 남자’를 ‘김치남’이라고 하기도 한다.

‘ㅇㄱㄹㅇ’은 ‘이거래알’의 초성을 딴 말이다. ‘레알’은 ‘진짜’를 뜻하는 ‘real’에서 나온 말로, ‘진짜로’ 정도의 의미로 쓰인다. ‘ㅇㄱㄹㅇ’이라는 말 역시 ‘레알’과 유사하게 ‘이거 진짜야’ 정도의 의미로 쓰인다. ‘ㅇㄱㄹㅇ’의 원형인 ‘이거래알’은 사물 표시 지시대명사 ‘이것’의 구어적 표현인 ‘이거’와 외래어인 ‘레알’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복합어이다.

‘ㅂㅂㅂㄱ’은 ‘반박불가’의 초성을 딴 말로, 명사인 ‘반박(反駁)’과 ‘불가(不可)’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합성어이다. ‘반박이 불가능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예를 들어 “해가 동쪽에서 뜬다는 사실에 어떻게 생각하니?” 라는 물음에서 ‘반박불가’라고 사용하면 반박이 불가능한 사실을 강조하여 표현할 수 있다. 10대들의 인터넷 환경에선 ‘이거래알’과 ‘반박불가’가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흔히 초성만 따서 ‘ㅇㄱㄹㅇ ㅂㅂㅂㄱ’이라고 사용된다. 이럴 경우 ‘이것은 정말로 반박이 불가능할 정도로 올바른 논리이다.’ 혹은 ‘맞는 말이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1도 모른다.’는 자연수 중 가장 작은 숫자인 ‘1’을 ‘조금’이라는 의미로 활용한 표현으로, ‘조금도 모른다’는 의미를 강조하여 나타내는 데에 사용된다. 이와 유사하게 ‘조금도 없다’는 의미로 ‘1도 없다’라는 표현도 존재한다.

‘No’라는 외래어에서 파생된 접두사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단어도 있다.<sup>14)</sup> ‘노답’은 접두사의 기능을 하는 ‘No’와 한자어 ‘답’의 결합 구조로 된 말로, ‘답이 없다’는 의미를 지닌다.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한 말이지만, 10대와 20대들 사이에서 거의 일상어 수준으로 쓰이고 있다. ‘노잼’은 접두사 역할을 하는 ‘No’와 ‘잼’의 결합으로 된 말로, 여기서 ‘잼’은 ‘재미’의 준말이다. 즉, 이는 ‘재미없다’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이다. 이와 같이 ‘no’는 기존의 단어에서 부사나 형용사로 쓰였던 것과 달리 신조어 형성에선 접두사로 쓰이고 있으며 이는 외래어 어종 신조어에서 외래어 단어가 단어 형성 요소로 바뀌어 신조어를 만드는 방식 중에 하나이다.<sup>15)</sup>

‘꿀잼(허니잼)’은 각각 명사인 ‘꿀+잼(재미)’의 구조로 된 말로, ‘매우 재미있다’ 정도의 의미를 지닌다. 여기서 ‘꿀’은 강조의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꿀이 단 것 만큼이나 그러하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다. 신조어에서 ‘꿀’은 주로 긍정적인 의미와 함께 사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영어인 ‘허니(honey)’로 표현하여 ‘허니잼’과 같은 말을 사용하기도 한다.

‘넘나’는 ‘너무나’의 준말로, 문장의 끝이 ‘~한 것’이라는 표현과 함께 쓰이도록 해주는 부사어이다. 즉, ‘넘나 ~한 것’이라는 표현은 ‘너무 ~하다’ 정도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

13) “ 허영의 상징 저런 모던걸, 저런 김치녀”(경향신문 2016년 5월)

14) ‘no(노)’라는 말이 붙어 단어를 형성하는데 생산성이 있어 다양하게 활용되어 홀로 쓰이지 않고 다른 단어와 붙어서 쓰인다는 점에서 본고에서는 접두사로 분류하였다.

15) 백영석, 신조어 조어법 연구 : 명사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2001, p.98

다. 이는 SNS의 글자 수 제한으로 인해 SNS 이용자들이 쓰게 됨에 따라 유행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이 음식 너무 맛있다’라는 의미의 경우, ‘넘나 맛있는 것’이라고 사용한다.

‘양 기모띠’는 ‘양’과 ‘기모띠’가 결합한 감탄사로, ‘기분이 좋다’라는 의미를 지녔다. 여기서 ‘양’은 미국의 게이 포르노 배우인 빌리 헤링턴이 자신의 출연작에서 낸 신음소리이며, ‘기모띠’는 ‘기분이 좋다’를 의미하는 일본어 ‘기모찌’의 혀 짧은 발음이다. 이런 구성을 가진 ‘양 기모띠’라는 말은 모 인터넷 방송에서 사용된 것을 시초로 하여 10대와 20대 사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극혐’은 한자어 ‘극’과 ‘혐오’가 혼성이 되어 만들어진 말, 혹은 ‘극혐오하다’가 축약되어 생긴 말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2015년 신조어 조사에서 ‘극혐오하다’라는 말이 먼저 쓰이고 있었음이 나타났기 때문에 어휘 형성 순서를 ‘극혐오하다’에서 ‘극혐’으로 발전한 것으로 생각하고 축약으로 분류했다. ‘극혐’은 ‘매우 미워하고 싫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는 원래 단어인 ‘극혐오하다’는 동사 ‘혐오하다’에 정도가 심하다는 뜻의 접두사 ‘극(極)’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파생어로 2016년에 들어서 앞의 두 음운만 축약되어 사용되고 있다. 10대들의 경우 ‘한입충, 극혐’이라는 예시를 통해서 ‘한입만 달라고 하는 사람을 매우 미워하고 싫어한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안물 안궁 어쩔’은 ‘안 물어봤다.’의 준말인 ‘안물’, ‘안 궁금하다.’의 준말인 ‘안궁’, ‘어쩔라고’의 준말인 ‘어쩔’이 함께 사용된 것으로, 상대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무시를 하거나 비아냥거리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 신조어는 세 어휘가 함께 사용되기도 하고 ‘안물 안궁’과 같이 2가지만 사용되거나 각각 따로 사용되기도 한다.

굉장히 생산성이 높은 신조어인 ‘개-’는 많은 논의가 있지만 접두사 ‘개-12’의 변형된 형태라고 추정하는 연구가 다수이다.<sup>16)</sup> 그렇기 때문에 필자의 연구에선 이러한 논의에 따라 ‘개-’의 분석을 진행하도록 할 것이다. 우선 사전적인 뜻은 이러하다.

「접사」 17)

1. (일부 명사 앞에 붙어) ‘야생 상태의’ 또는 ‘질이 떨어지는’, ‘흡사하지만 다른’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2. (일부 명사 앞에 붙어) ‘헛된’, ‘쓸데없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예) 개꿈, 개나발, 개수작, 개죽음
3. (부정적 뜻을 가지는 일부 명사 앞에 붙어) ‘정도가 심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예) 개망나니, 개잡놈

신조어로 쓰이는 ‘개-’의 경우 ‘몹시 그러하다.’는 뜻을 지닌 접두사로 사용된다. 다양한 용 언 및 몇몇 체언과 함께 쓰이며 무척 분포가 높은 편에 속한다. 쓰이는 예로는 ‘개너무하다.’, ‘개사이다’ 등이 있다. 이들의 뜻은 각각 ‘진짜 심하게 너무한다.’, ‘정말 사이다처럼 속이 시원하다.’로 볼 수 있다.

‘눈새’는 ‘눈치 없는 새끼’의 줄임말로 ‘눈치가 없는 사람’을 속되게 부르는 말을 의미한다. 유사한 말로 ‘넌씨눈’이라는 말이 있으며 이는 ‘넌 씨발 눈치도 없냐’라는 말의 줄임말이다.

16) , 신조어에서 나타나는 어형 변화의 한 양상, 『語文論集』 64권, 2015, p.112-p.113

17) [http://stdweb2.korean.go.kr/search/View.jsp/국립국어원], 2016년 8월 24일

위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이들을 조어방식 및 어중에 따라 분류해보고자 한다. 단 자주 사용하는 신조어 20개에 속하지 않는 단어 유형은 설문조사 결과로 나온 다른 신조어 들로 대체하였다. 먼저 조어방식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분류  |     | 예               |                |
|-----|-----|-----------------|----------------|
| 단일어 | 생성  | 까룩쿠스투스          |                |
|     | 차용  | 인정 , 오지다, 찢다, 각 |                |
| 복합어 | 합성어 | 합성              | 이거레알, 꿀잼, 반박불가 |
|     |     | 혼성              | 네니오            |
|     |     | 축약              | 넘나, 극혐, 눈새     |
|     | 파생어 | 접두 파생           | 노잼, 개이득, 노답    |
|     |     | 접미 파생           | 김치녀            |

▲ 표 15

단일어로서 새로이 생성된 신조어는 ‘까룩쿠스투스’를 들 수 있다. 차용에 따라 만들어진 말에는 본래의 단어를 가지고 있는 ‘오지다’, ‘인정’과 ‘각’, 그리고 본래 모양과 달라지긴 했지만 ‘찢다’ 등이 해당된다. 합성에는 ‘이거레알’과 ‘꿀잼’, ‘반박불가’와 같이 체언과 체언이 합쳐져 만들어진 말들이 속한다. 혼성의 합성어로는 ‘네니오’를 들 수 있다. 축약은 한 단어 혹은 문장, 구가 축약되어 만들어진 것들이 해당되는데, ‘넘나’와 ‘극혐’, ‘눈새’가 그것들이다. ‘넘나’는 ‘너무나’가 줄여져서 만들어진 말이고 ‘극혐’은 ‘극혐오하다’라는 단어가 줄어진 말이기 때문이다. 파생어에는 생산성이 높은 ‘노-’와 ‘개-’ 접두사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노잼’, ‘개이득’, ‘노답’이 있으며, 접미사 ‘-녀’가 붙어 만들어진 ‘김치녀’가 있다.

다음은 어중에 따라 분류한 표이다.

| 분류  |          | 예                   |
|-----|----------|---------------------|
| 고유어 |          | 오지다, 찢다, 꿀잼, 넘나, 눈새 |
| 외래어 |          | 걸크러쉬                |
| 한자어 |          | 각, 인정, 반박불가, 극혐     |
| 혼종어 | 고유어+ 외래어 | 이거레알                |
|     | 고유어+ 한자어 | 개이득, 김치녀            |
|     | 외래어+ 고유어 | 노잼                  |
|     | 외래어+ 한자어 | 노답                  |

▲ 표 16

‘오지다’, ‘꿀잼’, ‘쩨다’, ‘넘나’, ‘눈새’는 고유어만으로 이루어진 단어들로 고유어 어종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걸크러쉬’는 ‘girl’과 ‘crush’가 결합한 외래어이며, ‘각’, ‘인정’, ‘반박불가’, ‘극혐’의 경우 각각 한자어에서 시작된 단어로 한자어를 원어로 삼고 있다. 나머지 ‘이거래알’, ‘개이득’, ‘김치녀’, ‘노잼’, ‘노답’ 등은 혼종어로 어종이 섞여있다.

### 2.2.3 10대들의 신조어 사용 실태와 그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10대들의 신조어 사용 실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초성만으로 이루어진 단어가 많이 사용된다. 이는 신조어를 알게 된 경위가 인터넷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 많으며 SNS가 활성화되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빠르고 손쉬운 소통을 하기 위한 목적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ㅇㄱㅇㅇ’과 ‘ㅂㅂㅂㄱ’, ‘ㅇㅈ’ 등이 그 예이며, 다수를 차지하지 않았으나 ‘ㅂㅂㅋㅌ’라는 신조어도 있었다.

둘째, 단어 혹은 구, 문장의 축약이 많이 사용된다. 그 예로 ‘버스 정류장’을 줄인 ‘버정’이 있으며, ‘문화와 동떨어져있다’는 의미로 ‘문화 찌파’를 ‘문찌’이라고 부르거나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는 의미로 ‘세젤예’가 사용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 역시 단어의 초성만 사용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편리하게 언어생활을 하기 위한 목적에서 나타난 현상이라 볼 수 있다. 이는 10대들이 신조어를 쓰는 이유에 편하기 때문이라고 답한 것과 연관 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10대 자신들이 직접 만들어 사용한 말의 경우 축약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상당하였다. 그 예로 ‘자몽’, ‘일인일베’, ‘코싸맨뚜’, ‘문충’ 등이 있다.

셋째, 인터넷 매체의 영향을 받은 신조어가 많다. 예로는 ‘고급시계’, ‘일베’, ‘김치녀’ 등이 있다. ‘고급 시계’의 경우, 현재 유행하고 있는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재미있게 부르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베’, ‘김치녀’는 특정 사이트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두 단어 모두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이외에도 10대들이 ‘앙 기모띠’나 ‘응 아니야’와 같이 인터넷 방송에서 유행하는 말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통해 10대들이 인터넷 매체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외래어가 신조어 형성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낫닝겐’과 같이 영어와 일본어가 함께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며, ‘레알’이라는 외래어를 다른 단어와 함께 사용함으로써 ‘레알 밥도둑’, ‘이거래알’ 등의 단어를 자주 사용한다. 일본어로 ‘기분 좋다’라는 뜻인 ‘기모찌’를 흔하게 사용함으로써 자신들이 기분이 어떤지 강조하여 표현하기도 한다. 10대들이 스스로 만든 신조어에서 이는 더욱 잘 드러나며 ‘- is my life’라는 구를 통해서 ‘친구를 소중한 여긴다.’ 의미를 표현하였다. 이것의 뜻은 ‘-은 내 삶만큼 소중한 여긴다.’는 뜻이며 친구이름을 주어에 넣고 사용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like 이름’을 통해서 ‘-와 같다’는 표현을 하며 ‘나트름’은 ‘no answer’를 앞의 두 음운만 딴 축약어로 ‘나트름’의 원소기호가 ‘NA’인 데서 착안하여 ‘나트름’이라고 사용한다. 이는 ‘답이 없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다섯째, ‘매우’를 의미하는 ‘존나’ 혹은 ‘졸라’ 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와 결합한 만들어진 단어를 축약하여 쓰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존잼’, ‘존예’ ‘존잘’ 등이 있으며 각각 ‘아주 재밌다’, ‘아주 예쁘다’, ‘아주 잘생겼다.’ 혹은 ‘아주 그림을 잘 그린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여섯째, 상대방을 무시 및 모욕하거나 상처 주는 말이 자주 사용된다. 이는 흔히 ‘-충(蟲)’

이라는 접미사를 붙여 ‘한입충’, ‘급식충’ ‘쩍쩍충’ 등과 같이 사용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자주 사용하는 신조어로 ‘김치녀’, ‘노답’, ‘극혐’, ‘일베’ 등이 사용되었으며, 이들이 인신공격성을 지닌 언어라는 것을 통해서도 짐작 가능하다. 10대들이 직접 만든 신조어 중 ‘콧구멍 사이즈가 맨홀 뚜껑이다’라는 의미의 ‘코싸맨뚜’, 사람을 무시할 때 사용하는 ‘무응’ 등의 표현 역시 이러한 예이다.

일곱째, 의미 없이 자신의 놀라움을 표현하거나 감정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이는 의성어, 의태어, 감탄사가 많이 사용된다. 흔히 놀라움을 표시할 때 ‘쩨다’의 활용형인 ‘쩨어’라는 감탄사를 사용하며, 이외에도 ‘오진다’, ‘헐’, ‘대박’ 등을 통해 감정을 나타내었다. ‘앙 기모띠’, ‘기모찌’, ‘꿀잼’, ‘개이득’ 등의 말은 기쁨을 드러내는 데에 자주 사용되는 것들이다. 10대들이 직접 만든 신조어의 경우에는 친구들과의 대화 상황에서 재미있게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쥬아영’, ‘어우어우’ 등의 말이 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신조어를 만들거나 사용할 때 자신의 일상생활과 연관되어 신조어를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담임선생님을 은밀하게 욕하는 말인 ‘오지현따’나 자신들의 생활에서 친숙한 사물들을 이용하여 만든 ‘버정’, ‘버카충’을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메주’와 같이 자신들의 친구들의 별명을 지어주거나 ‘NA’와 같이 실제 학교에서 배우는 용어를 통해서 신조어를 만드는 등 학생들이 자신의 생활에 친숙한 것을 이용하여 신조어를 만들거나 이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신조어에 대한 10대들의 인식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기로 하자. 학생들에게 신조어 증가에 대한 자신을 생각을 그렇게 표시한 이유를 묻자 다양한 답변이 나왔다. 우선 신조어 사용에 대해 긍정적이라 응답한 학생들이다. 총 128명 중 30명은 재미있고 즐겁기 때문이라고 답했으며, 19명은 대화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꼽았고, 17명은 친밀감과 소속감이 증가하기 때문임을 이유로 들었다. 그 외에 나온 답변으로는 ‘어휘가 다양해진다.’, ‘신조어 또한 우리말이고 문화이기 때문이다.’ 등이 있다.

부정적이라 답한 학생들의 응답은 크게 4가지 부류로 나뉘어졌다. 총 156명 중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답한 학생이 5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우리말의 파괴를 가져온다는 의견이 38명에게서 나왔다. 부정적인 뜻을 가진 신조어가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신조어의 사용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입장은 12명에게서 나왔으며, 지나친 사용으로 언어생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은 6명에게서 나왔고 나머지 학생들은 답변을 해주지 않았다.

‘잘 모르겠다.’, ‘기타’에 답한 학생들은 총 281명이다. 약 1/3인 90명이 신조어에는 긍정적인 면도, 부정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기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하는 학생은 소수였다. 구체적인 기술을 해준 학생들은 신조어가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원활하게 해주는 것은 인정하지만, 대다수의 신조어가 부정적인 뜻을 담고 있다는 점을 신조어 문제점으로 꼽았다. 반면 신조어의 사용 실태에 관해 별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응답이 곤란하다는 입장도 있었다. 이러한 반응은 신조어가 학생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지만 학생들이 그에 대해 아무런 생각도 없이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예시이다. 이는 학교에서 신조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다음으로 학생들이 신조어 교육에 관해 답변한 설문을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무응답을 제외한 중학생 140명 중 74%인 104명과, 무응답을 제외한 고등학생 436명 중 90%인 402명이 학교에서 신조어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신조어를 사용하는 학생들

이 굉장히 많은 만큼 학교에서 확실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리라 생각한 것과 정반대의 결과였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가 유행어나 은어 등도 신조어의 범위에 포함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교육받지 못했기 때문에 도출되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바이다. 학생들의 답변을 통해 살펴본 바로는 설령 신조어 교육을 받는다 하더라도 신조어의 의미 및 단어 형성 과정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것이 전부라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게다가 아예 아무런 영향을 받지 못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신조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답변을 준 학생 중 구체적인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응한 학생은 2명이었다. 이들은 학교에서 부정적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답변 하였다.

설문조사를 토대로 하여 살펴본 결과, 학생들이 신조어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다루는 신조어 교육의 비중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대들이 사용하는 신조어의 대다수는 부정적인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학교 교육은 학생들의 언어생활과 관련한 신조어 교육을 거의 실시하지 않고 있다. 설령 교육을 하더라도 직접 신조어에 대해 진지한 성찰을 유도하는 것이 아닌, 개념 위주의 교육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학교에서 부정적으로 가르친다.’는 답변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마냥 ‘신조어는 부정적인 것’이라는 인식을 주입하여 10대들에게 오히려 반감을 사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10대들은 대체로 신조어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공존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알지는 못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로 인해 신조어의 증가를 마냥 부정적인 현상으로 보지 않고 중립적으로 보았다.

## 2.3 학교교육에서의 신조어

### 2.3.1 현행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신조어

앞서 10대들의 신조어 사용 양상이 어떠한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해보았다. 위의 결과를 토대로 신조어 교육의 현황을 살펴보면 학습자 대다수가 신조어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이는 중학교에서 신조어 교육을 받은 학습자가 약 25%정도 되었던 것과 달리 고등학교에선 약 7%정도밖에 안 된 것과 연관시켜 보면 현행 학교 교육에서 신조어 교육이 차지하는 위치가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설령 신조어 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학습자 본인에게 신조어 교육이 미친 영향은 대다수가 ‘신조어의 정의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점을 꼽았다. 이를 통해 대부분의 신조어 교육이 개념 정립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8학년 문법 교육과정에서 어휘의 양상을 구분하는 것으로 등장한다. 이때 전문어, 유행어, 은어를 주요 학습 대상으로 하고 신조어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그리고 8학년 문법에서 국어 단어 형성법을 이해하고 활용한다는 성취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 새로운 단어를 조사하는 학습 방안이 제시되었다. 2009년 개정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단어 형성법과 단어의 의미 유형과 단어 간 의미 관계, 의미 변화의 양상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성취기준이 설정되었다. 다만 2007년 개정 교육과정과 달리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선 ‘국어와 삶’의 범주를 ‘국어와 생활’ 부문 내용을 중심으로 주목하여 ‘매체 언어’ 내용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는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언어와 매체’ 부분으로 심화되었으며 이 부분에서 신조어가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현행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신조어와 관련하여 중학교 1-3학년 문법에서 어휘의

체계와 양상 등을 배우게 된다. 이는 고등학교 심화 교육인 ‘언어와 매체’ 부분과 연결되며 ‘단어의 짜임과 새말의 형성 과정을 탐구하고 이를 국어생활에 활용한다.’라고 직접적으로 나타난다.<sup>18)</sup> 이를 통해서 신조어 교육이 형성 과정 탐구와 단어 짜임 분석에 집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언어와 매체’에선 국어생활과 매체 언어생활에 대해 성찰하고 학습자의 언어생활을 개선 하도록 하는 언어와 매체에 관한 태도가 그 목적이 된다. 이는 교육과정이 매체와 관련해서 나타나는 실제 국어생활의 탐구와 활용에 집중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가상공간에서 널리 쓰이는 신조어를 알아보고 그것의 올바른 사용이 최종적인 목표가 된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학교 교육은 신조어의 올바른 사용과 언어생활 개선이 그 목표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학교교육에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정의나 개념만 아는 범위에 그쳤다. 이는 앞서 보여준 설문조사의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또한 ‘신조어를 마냥 부정적으로 가르친다.’라는 답변이 있을 정도로 신조어에 대해 편향된 시선을 가지고 교육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신조어 교육이 실제 학습자나 교사들에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을 수 있다. 또한 평가를 하기에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나 ‘신조어’라는 것의 정의부터가 확실하게 정립되지 않은 시점에서 학생들에게 신조어가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한 교육을 진행할 수 없는 것이 큰 문제점일 것이다. 하지만 최근 문법 교육이 실제 국어생활을 사례로 하며 학습자의 언어생활을 개선하고 국어의 발전을 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신조어 교육은 좀 더 중시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10대들의 신조어는 대중 매체에서 일차적으로 생성되고 사회적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이를 생각하면 신조어는 현행 교육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지는 ‘매체 언어’와 마찬가지로 실제 국어 생활에 가장 가까운 언어이다. 그러므로 신조어는 지금보다도 더 학교 현장에서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조어의 불명확성은 그 개념 및 형성 과정에 집중하기보다 학생들의 바른 언어 습관 및 태도 정립에 초점을 둔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생각된다.

### 2.3.2 신조어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지금까지 이야기 한 것을 바탕으로 생각하여 볼 때, 신조어는 현재 10대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으며 10대들의 문화 그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에서 꽤나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7, 2009, 2012, 2015 교육과정을 두루 살펴본 결과 신조어에 대한 교육내용은 썩 많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학교현장에선 신조어가 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분야인 만큼 보다 실생활에 밀접한 활동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단순 정의에 관한 교육에 미친다는 점 또한 문제점으로 꼽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교과에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신조어 교육을 가르쳐야함이 필수로 보인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신조어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이 담긴 설문지를 돌리자 총 586명 중 오직 64명만이 학교에서 신조어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이마저도 대부분이 신조어의 정의 및 형성 방식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답변일 뿐 신조어의 사용 그 자체에 대해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키지는 못하였다.

18) , 2015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국어, p.111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신조어 교육의 목표를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필자는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신조어 중에 다른 사람을 비하하는 것이 많다는 점과 학생들이 신조어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점을 바탕으로 하여 목표를 정립해 보고자 한다.

우선, 자신의 언어생활을 돌아볼 수 있는 태도를 길러야 한다. 이는 10대들의 언어 사용 실태에서 부정적인 말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것과 관련 있다. 그러므로 학습을 통해서 자신의 언어생활을 반성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길러 타인에게 상처를 줄 법한 말을 줄여 나가는 것을 중점으로 둔다. 둘째, 신조어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정확히 파악한다. 10대들이 주로 부정적인 신조어를 많이 사용한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으나, 신조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언어의 역사성을 생각해본다면 언어가 변화하는 것은 필연적인 절차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조어는 바르게 사용한다면 특정 문화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또한 언어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해주고 소속감을 증대시켜 줄 수도 있다. 신조어의 부정적인 면을 정확히 깨닫고 줄여나가는 태도는 키워되, 신조어의 긍정적인 면을 인식하고 바람직하게 사용하려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셋째, 조어 능력을 기름으로써 새로운 문화의 형성에 참여하는 태도를 기른다. 신조어는 새로운 현상 혹은 사물이 생김에 따라 나타나는 어휘로, 사회의 변화를 잘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신조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사회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과도 직결된다. 현 시대가 빠르게 변하는 만큼 이러한 능력은 중요하며 높은 언어 능력이 사고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만큼 조어 능력 기르기는 강조된다. 또한 어떤 상품의 독특한 이름을 지어냄으로써 이윤을 창출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으며, 자신의 상황을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데에도 조어능력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조어 능력은 실생활에서 더욱 유용하게 작용한다. 무엇보다 사람은 새롭고 재미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일종의 본능을 가지고 있다. 국어교육은 인간의 이러한 본능을 자극시켜주어 그들의 언어생활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즉 학생들에게 조어능력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올바른 언어의 향유자가 되도록 교육하는 것은 학생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한 언어생활을 향유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했을 때 현재 학교의 신조어 교육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신조어 교육의 비중을 늘리는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2015 현행 학교 교육과정을 보면 언어와 매체 파트의 ‘국어의 탐구와 활용’ 부분에서만 ‘새말’이라는 신조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등장하며 대부분은 ‘언어와 매체’ 파트에서 간접적으로 암시되어지고 있다. 이처럼 학교 교육에서 신조어 교육의 분량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학생들과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언어인 ‘신조어’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렇게 신조어 교육의 양이 늘어나면 단순 정의 및 형성방식에 대해 교육하는 것을 넘어서 보다 질 좋은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필자는 2015 교육과정 성취기준 ‘[12언매04-01] 자신의 국어생활에 대해 성찰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12언매04-02] 자신의 매체 언어생활에 대해 성찰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태도를 지닌다.’와 ‘[12언매04-03]현대사회에서 언어와 매체 언어의 가치를 이해하고 언어문화와 매체문화의 발전에 참여하는 태도를 지닌다.’를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하였다. 요즘 학생들의 부정적인 언어세태가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취기준과 필자가 행한 설문조사의 결과에 의거하여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깎아 내리는 언어 그리고 비속어 등의 신조어 사용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교육을 실행해야만 한다. 즉 의사사통에 방해가 되거나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

게 하는 신조어의 무분별한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기에 이러한 점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2015 국어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교 내에서 신조어 교육은 부정적 언어 표현의 폐해를 인식하고 바람직한 의사소통 문화를 형성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과 언어폭력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상대를 배려하며 말하는 태도를 지니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2.3.3. 신조어 교육의 교수·학습방안

필자는 앞서 학교 현장에서의 신조어 교육이 불건전한 언어생활을 인식하고 학생들의 바람직한 언어 태도를 기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 교수·학습 방안은 신조어 교육이 필자가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우선 거꾸로 수업을 통해서 신조어의 개념을 습득시키고 신조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알아보도록 한다. 거꾸로 수업이란 교사가 기본 이론은 학생들이 가정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수업 시간에는 활동 위주의 학습을 진행하는, 수업과 과제의 순서가 뒤바뀐 수업을 뜻한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총 2번의 수업이 진행되는 것이기에 ‘거꾸로 수업’은 지식의 습득에 효과적이다.

신조어 교육은 신조어에 대한 지식보다는 바람직한 신조어 사용에 대한 의식을 키우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신조어의 기본적인 개념을 배우는 데에 쓰이는 시간을 거꾸로 수업을 통해 단축하고, 수업 시간에는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바람직한 언어 습관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처음에는 교사가 신조어의 정의와 분류, 단어 형성 방법 등의 개념을 통해서 신조어에 대해 동영상으로 설명해준 다음, 학생들은 그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수업 시간에 활동을 실시한다. 수업 시간에는 동영상 강의를 통해 익혔던 개념을 바탕으로 활동을 진행한다. 한 반에 약 25명으로 5명씩 5개의 조가 만들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각 조마다 국립국어원에서 정리한 신조어를 5개씩 분배하여 직접 신조어를 분석해보고 이들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품사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한다. 그런 다음 조별로 분석한 신조어를 발표해보고 신조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서로 이야기해 본 뒤에, 신문기사나 인터넷 기사 등에 사용된 신조어를 직접 찾아보는 활동을 한다. 이를 통해 신조어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신조어가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게 함으로써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개념을 학습한 후에는 수업시간 활동으로 자신이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신조어에 대한 고찰을 진행하고자 한다. 10대들이 주로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로가 친구 혹은 SNS라는 점을 감안하여, 신조어 관련 활동을 매체와 연관시킴으로써 실제적인 신조어 사용 상황에 접근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신조어 사용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파악하고 자신의 언어생활을 성찰하는 교육 목표를 이룰 수 있다.

우선은 학생들에게 자신이 사용하는 SNS 공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게시물 및 댓글들을 캡처해오는 것을 과제로 낸다. 사용하는 SNS가 없다면 신문 등의 댓글도 좋다. 혹시나 학생들이 가지고 온 자료에 신조어의 양상이 잘 담기지 않은 것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교사는 직접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를 방문하며 적절한 예시가 담긴 신조어들을 프린트해오도록 한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각 조에 3개씩 주어 모둠 활동을 진행한다. 그 다음으로 학생들에게 학습활동을 하기 전에 학습 활동지를 나누어주고 SNS의 언어 사용 실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한다. 우선 ‘찾아온 자료를 바탕으로 신조어 사용에 대해 다음

상황이 어떠한 느낌을 주는지 이야기해봅시다.’, ‘그러한 느낌을 받은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적어봅시다’, ‘위의 학습활동을 바탕으로 신조어 사용에 대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적어봅시다.’라는 학습활동을 통해서 신조어 사용에 대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파악한 다음에 ‘SNS 혹은 다른 사람과의 대화상황에서 신조어 사용은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주제로 토론을 하게 한다. 교사는 사회자 역할로 학생들끼리 찬반을 나눠 토론을 진행함으로써 이론적으로만 배웠던 신조어에 대해 직접 몸으로 깨닫고 자신의 언어생활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게 한다. 그 후 인터넷, SNS, 다른 사람과의 대화 상황에서 신조어로 인해 즐거움을 느꼈거나 불쾌감을 느꼈던 경험을 발표해보는 시간을 가지므로써 잘못된 언어생활에 대한 성찰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자신의 언어생활을 성찰하는 교육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위의 단계가 위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신조어 교육의 또 다른 목표인 ‘조어 능력을 기르기’는 단기적인 수업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으로 진행해야 한다. 우선 단어의 형성 방법과 어휘의 양상에 대한 이해가 선행된 후에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학습을 하는 것이 좋다. 이에 필자는 다음과 같은 학습활동 4가지를 생각해 보았다.

1. 주사위를 굴러 다음 문장을 한 개 만들어보자.

|  |               |            |                |   |
|--|---------------|------------|----------------|---|
|  | _____ (누가)이/가 | _____ (언제) | _____ (어디서)에서  |   |
|  |               | _____ (왜)  | _____ (무엇을)을/를 |   |
|  |               |            | _____ (어떻게)    | . |

|   | 누가  | 언제        | 어디서  | 왜             | 무엇을          | 어떻게      |
|---|-----|-----------|------|---------------|--------------|----------|
| 1 | 조원1 | 오늘        | 교실   | 심심해서          | 춤추기를         | 열정적으로 한다 |
| 2 | 조원2 | 어제        | 화장실  | 똥이 마려워서       | 랩을           | 힘없게 한다.  |
| 3 | 조원3 | 아래계       | 경찰서  | 그(녀)가 그리워서    | 공부를          | 빠르게 한다   |
| 4 | 조원4 | 첫눈 오는 겨울에 | 운동장  | 공부가 너무 하고 싶어서 | 영화 보기를       | 슬프게 한다.  |
| 5 | 조원5 | 장마철에      | 청와대  | 주목받고 싶어서      | 편지 쓰기를       | 기쁘게 한다.  |
| 6 | 담임쌤 | 벚꽃이 피는 봄에 | 놀이공원 | 사랑이 필요해서      | 친구에게 치킨 사주기를 | 화내면서 한다. |

2. 만들어진 문장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을 만들어 보자. 만든 방법 및 과정 등을 써보자.

예) 담임쌤이 어제 화장실에서 주목받고 싶어서 랩을 슬프게 한다.

-랩슬립 : 랩+ 슬(프다)+ 립(‘슬프다’에서 어간의 일부인 ‘슬’이 ‘잡자다’의 영어 발음인 ‘슬

립'과 비슷하기 때문에 입에 좀더 붙는 말을 만들고 싶어서 '립'을 붙이게 되었다.)

3. 내가 좋아하는 가게 이름을 새롭게 만들어보자. 그리고 이유도 적어보자.

예) 설빙- 눈꽃 내리는 밤 :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빙수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감동에 걸맞게 서정적인 말을 사용하고 싶어서

4. 내 주변 물건 두 가지를 새로운 말로 바꾸어 보자. 그리고 이유를 적어보자

예) 소파-폭폭 : 소파에 앉거나 누우면 폭폭 잠기는 게 기분이 너무 좋기 때문에

### ▲ 표 17

이는 조어 능력 기르기 활동으로 제시할 학습 활동지 중 하나이다. 학생들은 주사위를 굴러 이 문장을 채우게 되고 이 상황에 맞는 신조어를 만듦으로써 조어 능력 기르기 활동을 하게 된다.

1번과 2번은 상황에 맞는 말 만들기를 통해서 학생들의 흥미를 자극시키고 조어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다. 이 활동은 주사위 굴리기를 통해서 각각 빈 칸의 단어들을 선정하고 문장을 만든 후 이러한 상황에 맞는 말 만들기를 통해서 조어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그리고 만든 말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분석함으로써 학생들이 올바른 조어 방법을 익혔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다음으로 3번과 4번은 평소 볼 수 있는 가게 혹은 사물 이름을 새로운 말로 바꾸는 것으로 최근의 사회가 창의적인 생각을 요구하는 만큼 조어 능력 기르기를 통해서 새로운 사고를 낳을 수 있도록 도움 주는 활동이다. 이 활동을 통해 기존의 말을 새로 만들어서 조어 능력을 기른다.

## Ⅲ. 결론

본고는 일상생활에서 신조어 사용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에 비추어 신조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이루어지고 있는가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일차적으로 신조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위해 신조어의 정의, 특징과 범위, 유형 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신조어의 주 향유계층인 1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현재 사용되는 신조어의 양상 및 그에 대한 인식, 신조어 교육 실태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표본의 절반 이상이 신조어를 즐겨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이 사용하는 신조어의 양상은 합성어, 초성을 딛 말, 기존의 단어에서 의미가 확장된 것 등으로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었으며,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한 것이 많다는 특징을 보였다. 그들의 신조어 사용에는 또래, 인터넷이나 SNS 등이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었으며, 신조어를 직접 만들어 사용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매우 적게 나타났다. 신조어의 사용에 대한 인식 측면에서는 신조어의 양면성을 인식하고 있는 청소년들도 일부 나타났지만, 부정적인 측면이나 긍정적인 측면만을 편향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청소년이 더 많았다. 또한 학교현장에

서의 신조어 교육은 신조어 사용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에 비해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10대들의 신조어 사용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8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초성만 딴 단어가 많이 쓰인다. 둘째, 단어 혹은 구, 문장의 축약이 많이 사용된다. 셋째, 인터넷 매체의 영향을 받은 신조어가 많다. 넷째, 외래어가 신조어 형성에 많이 이용되었다. 다섯째, ‘매우’를 의미하는 ‘존나’ 혹은 ‘줄라’를 다른 단어와 결합하여 만든 단어를 축약하여 쓰는 경우가 빈번하다. 여섯째, 상대방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말이 많이 사용된다. 일곱째, 의미 없이 자신의 놀라움을 표현하거나 감정을 강조하기 위해 쓰이는 의성어 및 의태어가 많으며 감탄사 또한 많이 사용된다. 여덟 번째, 학생들은 자신의 일상생활과 관련있는 신조어를 만들거나 활용하면서 신조어를 이용한다.

필자는 신조어의 사용 증가 추세에 맞추어 학교에서의 신조어 교육 또한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부분의 10대들이 학교에서 신조어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답변했기 때문이다. 설령 신조어 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를 통해 신조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하기 보다는 단순히 정의나 형성 과정을 알게 되는 데에 그치고 있었다. 교육과정 내에서도 신조어와 관련된 내용은 그리 많지 않았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우리의 언어생활에서 신조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그에 관한 교육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내용의 측면에 있어서도 단순히 정의나 형성과정에 대해 교육하는 것을 넘어서 학생들이 직접 자신의 신조어 사용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 서로 그에 대한 생각을 토론 및 토의 해보는 등의 활동중심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생들의 바람직한 언어생활에 대한 교육은 국어시간에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고 싶다. 언어생활에 대한 교육은 학교 안에서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 내에서 ‘바른 말 쓰기 프로그램’ 등을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의 언어생활 개선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 때 학급 별로 혹은 학교 내에서 학급회의를 진행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결과로 부적절한 신조어를 사용했을 때 친구들 앞에서 사과하기, 언어생활 일지 쓰기를 통해 자신의 언어생활을 반성하기 등이 나올 수 있다.

특히나 ‘언어생활 일지’는 수행평가 혹은 학생부 기재용으로 적합하다. 교사는 학생들이 자신의 부정적인 신조어 사용 실태를 그대로 적었을 때에도 어떠한 불이익을 주지 않겠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 학생들이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 거짓된 기록을 작성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언어 습관이 나아지지 않더라도 일정 정도의 점수를 주거나 생활기록부에 ‘꾸준하고 성실히 실태를 기록함’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을 기재해 줄 것을 약속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교사가 판단하기에 일지의 내용과 학생의 언어생활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어떠한 혜택도 줄 수 없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 교사는 학생들이 매일 자신의 언어생활을 반성하며 오늘 하루 동안 가장 많이 쓴 긍정적인 말 3가지, 부정적인 말 3가지를 쓰게 하고 그 단어가 어떤 상황에서 나온 것인지 또한 적도록 한다. 이에 대해 학생 스스로의 생각 또한 기재하도록 하며, 교사는 매일 아침에 일지를 걷어가서 피드백을 해준다. 이 때 학생의 언어생활에 지대한 관심을 지니고 있음을 표현해주는 것이 필수적이며 학생이 스스로의 언어생활을 면밀히 반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피드백이 필요하다. 이러한 활동을 한 학기 혹은 1년간 꾸준히 수행한다면 학생들의 언어생활을 조금이나마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 ◆ 참고 문헌

### -문헌-

1. 교육부, 「2015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국어」
2. 남기림, 「2014년 신어 조사 보고서」, 국립국어원, 2014
3. 백영석, 「신조어 조어법 연구 : 명사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2001 .
4. 서울대학교 국어교육 연구소, 「고등학교 문법 교사용 지도서」, 교육인적자원부, 2007
5. 임한열, 「신조어에서 나타나는 어형 변화의 한 양상」, 『語文論集』 64권, 2015
6. 임지룡 외 7인, 「학교 문법과 문법 교육」, 도서출판 박이정, 2015
8. 구분관 외, 한국어 문법 총론, 집문당, 2016
7. 홍지영, 「신조어의 형성 양상과 교수 학습 방안 연구」, 단국대학교, 2008

### -인터넷-

[<http://stdweb2.korean.go.kr/search/View.jsp/국립국어원>], 2016. 8. 23

[<http://stdweb2.korean.go.kr/search/View.jsp/국립국어원>], 2016년 8월 24일

<메 모 장>